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야간 2인 모임제한 '2주 더'

일 평균 확진자 1410명... 다음달 8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 8일까지 2주 연장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할 것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4차 유행 파도가 계속되며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면서 "3차 유행 당시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유행을 경험하는 지금은 1410명(7월 7~22일) 수준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3차 유행과 비교해 가족을 통한 감염 비중은 61.7%에서 39.8%로 크게 감소했으나, 지인·동료를 통한 감염 비중은 23.9%에서 41.0%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7월 첫째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799명에서 990명으로 24%가량 증가했으며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본 측은 이날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자체를 요청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

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이날 원주 건보공단 주변 8곳에서 각각 99명씩 나눠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 장관은 "수칙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4단계의 경우 낮 시간대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을 중단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플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칼럼]일본인의 자화상 아베 신조 전 총리

임진년(1592년) 조선을 쳐들어온 일본은 2달 만에 한양을 점령, 이미 겁을 먹고 도주한 선조로 인해 텅 빈 궁궐에 진입하고도 리더의 부재에 할말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일본에서는 성주가 성을 버리고 줄행랑을 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에 당시 조선의 수준을 한눈에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여기까지는 조선인들의 비겁함이 드러났지만 전라남도 해안을 거점으로 왜군을 섬멸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용맹함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물타기 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일말의 항복하자 전쟁터 곳곳에서 할복 자살로 소위 황군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도 허다했다.

특히 해전에서 함장은 부하들을 살리는 대신 끝까지 전함과 함께 침몰하며 장렬한 전사를 택하며 죽는 순간까지 반사이(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다.

이렇듯 일본 군인의 비장한 각오는 가미카제라는 자살부대를 편성, 젊은 군인들이 개인의 목숨보다 국가의 승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을 명예롭게 여기도록 만드는 데 기인하기도 했다.

비단 전쟁뿐만 아니라 작금의 사회에서도 지도자는 주어진 권한에 버금가는 책임도 동반한다. 무릇 리더와 조직의 구성원은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며 상황판단과 언행이나 처신도 다르다.

부하직원이 실수하면 지휘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극단적인 경우 장엄한 죽음으로 살아서 치욕보다 죽어서 명예를 선택하기도 한다.

사실이 깊다. 결론부터 논하자면 일본의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유치의 주역이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결사항전 하듯 밀어붙인 장본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3일 기자회견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 분노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소위 그 잘난 민족답지 않은 모습이다. 텅 빈 개막식에 전세계 많은 인사들이 외면한 도쿄올림픽은 처음부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판단과 영향력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었다. 작가가 작품 전시회에 빠진 것이다.

이번에는 일본의 방송 매체인 NHK가 아베 전 총리가 도쿄올림픽 개최식 참석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도쿄에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선언됐고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실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당사자만은 왔어야 하며 설령 경기가 취소되어 텅 빈 운동장에 혼자라도 서 있어야 했다.

그게 일본 민족만의 전형적인 오지랖 넓은 모습이자 침몰하는 전함의 함장으로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백년 전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싸움에 져서 어떤 모습으로 상황에 책임을 졌는지 안다면 아베의 이번 처사는 일본인 전체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버리는 것이니 진배없다.

일본 자국에서도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북을 울이 아니라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번 올림픽 개최를 통해 많은 걸 얻게 됐다. 육일기를 흔들며 아직도 군국주의 망상에 젖어있음을 보여준 단면이었다. 한국과의 영토분쟁을 대외적으로 표출하여 침략국이자 전범국가로서 여전히 잔재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잔치를 벌여놓고 일국의 대사관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자위 운운하며 비하 발언을 통해 일본의 정치적 수준을 보여주었고 풀지 못한 한·일간의 역사적 숙제를 이리저리 발뺌하며 스포츠 경기에 몰타기 하는 무식한 외교를 벌였다.

잔치를 벌인 주인공이 영망이 된 개막식에 나타나지 못하고 슬그머니 핑지를 빼는 형국이 되고 보니 한때 정권유지에 대한 욕심이 지금의 화를 불러 오는 동기가 됐다.

사실 현실적으로 남의 일도 아니다. 한국에서도 정권유지 욕심에 죄 없는 국민들만 등허리가 휘청대는 일이 한 두 건이었던가. 일일이 세자면 밤을 새도 모자라고 지금 이 글의 핵심이 자국보다 일본의 처세에 대한 것이다 보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핑자가 간간히 하는 말 중에 초등학생이 겁을 깨고 반성문을 쓰거나 보호자가 변상을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 일국의 총리가 국제적인 잔치판을 벌여 놓고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구분하지 않고 나대다가 막상 판이 어려워지니 슬그머니 핑지를 빼는 형상이다.

일을 하다보면 천재지변이나 질병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추후로 연기하거나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있어야 한다.

일단 밀어붙이면 다 될 것으로 착각하고 무리한 추진의 역효과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은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올림픽 경기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이던 지난해 3월 IOC 등과 협의해 올림픽 연기를 결정할 때 아베 당시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불투명하니 2년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모리 요시로 당시 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현장 의견을 묻고 1년 연기를 고집, 관철시켰다.

여기에는 일본의 방송 매체인 NHK가 아베 전 총리가 도쿄올림픽 개최식 참석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도쿄에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선언됐고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실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당사자만은 왔어야 하며 설령 경기가 취소되어 텅 빈 운동장에 혼자라도 서 있어야 했다.

그게 일본 민족만의 전형적인 오지랖 넓은 모습이자 침몰하는 전함의 함장으로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백년 전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싸움에 져서 어떤 모습으로 상황에 책임을 졌는지 안다면 아베의 이번 처사는 일본인 전체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버리는 것이니 진배없다.

덕암/김근식

이재명 지사, 방역수칙 위반 현장 직접 긴급 단속 나서 유흥주 점서 몰래 술 마시던 위반 사례 적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 집합금지 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

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점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장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모더나 백신 예방효과 94.1%...1차 접종에 델타 변이 72% 예방"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이 해외 3만 42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에서 94.1%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의 예방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요령 등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는 42만 1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접종 후 변이주에 대한 예방효과는 알파 변이 83%, 베타·감마 변이는 77%,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72%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1차 접종 후 입원

및 사망 예방효과는 알파 변이 79%, 베타·감마 변이는 89%, 델타 변이에는 96%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모더나 백신 접종은 22일 현재 총 6만 3248명이 완료됐고, 오는 26일부터는 50대 연령층에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 총괄단장은 "안전한 모더나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한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주의깊게 관찰해주시기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하며, 고

Table with 4 columns: Moderna Vaccine (mRNA-1273), Efficacy (%), Alpha, Beta/Gamma, Delta. Rows show efficacy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hospitalization/death prevention.

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특히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이나 심낭염 의심증상이 발생하거나 피부 필리시술자에서는 얼굴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은 이상반응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가슴의 통증, 압박감, 불쾌감이 느껴지거나 호흡곤란·숨가쁨·호흡 시에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두근거림이나 실신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악화되면 신속히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총괄단장은 "현재까지 1차 접종 완료자는 인구 대비 32.3%

로 총 1658만여 명이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 완료자는 672만 명으로 13.1%"라고 말했다.

이어 "월요일부터 시작한 고3 학생 및 교직원 접종은 총 32만 6000여 명으로 전체의 50.6%가 접종을 마쳤다"면서 "55~59세 연령층은 83.2%가 예약을 하였고 50~54세는 72.3%가 예약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날 배 총괄단장은 백신 도입 현황과 관련해 "오늘 모더나 백신 29만 회분이 도입돼 총 2492만 회분의 백신 도입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어 "8월 말까지는 약 3100만 회분의 백신이 추가 공급될 예정으로, 백신별 세부적인 공급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주시, 황성공원에 '맥문동 단지' 조성



성중기서울시의원, 강남세곡동~탄천연결보행·자전거전용교개통환영!

성 의원, '주민 편의와 안전 두 마리 토끼 잡아 여가활동 증진에 도움'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을 앞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탄천~세곡로 자전거 산책로를 연결해 달라는 세곡동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사업 검토를 시작했다.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100m 길이의 교량 설치 공사에 착공, 올해 교량 위 자전거 도로 설치까지 마쳐 오는 24일 개통할 예정이다.

탄천 자전거통행로 겸 보행교 설치로 세곡동 방향의 탄천 보행로에서 건너편 둔치까지 바로 연결돼 지역 주민들의 보행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행다리 연결로 세곡동~탄천 간 접근거리가 400m에서 150m로 단축되었고, 보행 노선과 자전거 노선을 각각 3m 폭으로 분리 설계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성 의원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한강 보행전용 교량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강남·북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이질감이 극복되고 경제, 자연 및 문화 자원을 공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강의 대다수 교량은 자동차 통행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

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으로 보행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강남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다리가 생겨 기쁘다"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여가활동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영국 런던 템즈강의 밀레니엄 다리, 독일 마인강의 아르제이너 보행교처럼 서울 한강에도 고유의 보행전용 다리를 건설해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강남·북 주민들의 교류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4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환영

특별재난지역 선포·환영



김한중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도내 4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해남군과 장흥군, 강진군 3개군과 진도군의 진도읍 군내·고군·지산면 등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는 지난 7월 15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에서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흥군을 포함한 전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들의 안정을 위해 '전남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지정 선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한중 의장은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파손이 심각한 강진군 대구천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고 대한민국시도의회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재난재해구호금 1000만 원을 지원받아 강진, 장흥, 해남, 진도군에 각각 쌀과 라면, 마스크 등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등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대 80%까지 국고로 지원받게 되어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게 됐다.

또한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지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한중 의장은 "즉각 피해지역의 현장조사와 점검을 한 이후 우리 전라남도의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속하게 건의하여 이번에 지정됐다"면서 "재가를 빠르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선포가 되도록 애를 써준 김영록 지사와 관계 공무원, 도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200만 도민들의 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 할 것이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에 도의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만/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민친화적 자치경찰하겠다며, 의회 경시"

지난 7월 1일 주민친화적 자치경찰을 표방하며 공식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뼈저리고 있어 도의회와 도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22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이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면서 "다만 법령에 의회에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예산사업이나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경청하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의원들에게 보고드려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같은 자치경찰위원장의 발언에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이 발언 내용을 문제 삼으며 업무보고가 중단됐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이형규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자치경찰은 주민자치의 완결판이라고 말씀하면서, 전라북도는 시민참여형 자치경찰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 운영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의회와 소통을 단절하는 것이 독립이 아니고, 지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며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어떻게 도민과 소통을 통한 민주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장이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장을 통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한마디 상의나 보고도 없이 업무보고 회의장에서 사무국장에게 발언요청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며 "자치경찰위원장의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3항에 의하면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 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김승일/기자



대구시의원 10명, '2021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 수상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수한 정책을 제시하고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구·경북 의원정책 대상' 시상식은 7월 21일 시의회 2층 강담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대구의 정참여센터 양준호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동료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해서 수상 의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대구·경북 의원 정책대상'은 대구의정참여센터와 오마이뉴스 주최로 2018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이 3년 간 제안한 정책들이 얼마나 시·도정에 반영되었는지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좋은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원규 의원은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조리한 노동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한편, 직접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 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배지숙 의원의 '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발생하는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점 지적', 홍인표 의원의 '상리음식물 처리장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 김성태 의원 '갑정노동자와 이등노동자들을 위한 쉼 제정' 등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시정질문, 5분 발언, 조례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좋은 정책 반영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입태상, 이영애, 하병문, 황순자, 송영현, 강성환 의원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궁영기/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트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우/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정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Z O O 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한국의 자연,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길
한국의 자연,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빛
한국의 자연,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영양
한국의 자연,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맛
한국의 자연,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심
한국의 자연,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우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천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민속박물관,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동굴발원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서초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집중 점검 실시



서울 서초구는 8월까지 계획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22개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해 실내오염도 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시설은 지역 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이용자·민원이 많고, 시설군별 오염도 검사 주기가 도래한 시설로 서울고속터미널 대합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학원 등 33개소다.

이에 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시설군별 필수 측정항목에 대해 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자가측정이행여부,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만약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해 구는 다중이용시설 총 30개소를 불시 점검해, 유지기준을 초과한 학원 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함께 구는 Post-Covid19 시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기질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시스템 '그린서초프로젝트'를 작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린서초프로젝트'는 영유아보육 시설,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359개소에 IoT를 활용한 1분 단위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환기시설 점검 및 환기 청정기 설치, 코로나19 예방 방역 및 전문컨설팅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실내 환경관리를 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1만1천대 추가보급... 28일부터 보조금 신청접수

서울시가 올 하반기 전기차 보급 예산 1,21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오늘 28일부터 11,201대를 추가 보급한다. 이번 추가예산확보로 지난 상반기 11,779대와 함께 올해만 총 22,98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전기차 보급 예산으로 1,419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2월부터 전기차 11,779대를 보급 중에 있다. 7월 15일 현재 79.3%가 접수된 가운데, 특히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의 경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인기로 100% 접수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하반기 국내 전기차 제작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수요증대에 대응하고, 환경 개선 효과가 큰 대중교통과 배달용 이륜차 등 상용차 부문의 공공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하반기 전기차 추가보급에 나선다.

전기승용의 경우 다양한 신차 출시로 하반기 사전계약 대수가 2만대, 실제 생산가능 대수가 1만대 이상이나 상반기 보급분량은 이미 접수 완료되어 하반기 추가 보급이 없을 시 전기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하반기 추가 보급분량과 달라진 차종별 보조금 지원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에 등재된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28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다만,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8월 4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57종, 화물차 16종, 이륜차 77종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추가 보급분량 총 11,201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0,582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619대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9,139대, 화물차 495대, 이륜차 948대, 택시 330대, 버스 289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분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619대(택시 330대, 버스 289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첫째, 전기승용차는 하반기부터 보조금이 기존 최대 1,200만원(국비 800, 시비 400)에서 1,000만원으로 시비 200만원이 축소된다. 이는 시의 한정된 예산에서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인 1만명의 50% 수준인 4,500명 이상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하반기 본격 생산을 앞둔 국산 전기차가 판매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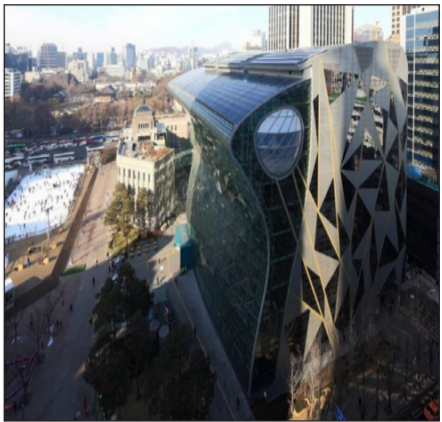
둘째, 전기화물차는 장애인·차상위 이하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확대와 전기화물차 보급이 기존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로 이어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극대화하고자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40%로 상향하였다.

셋째, 전기이륜차의 경우 미세먼지 개선 및 주택가 소음저감 효과가 큰 배달용 전기이륜차 집중 보급 등을 위해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였다. 또한, 전기이륜차 다량 구매 후 미운행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기준을 기존 구매대수 10대에서 5대로 강화하였다.

시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차 전환 지원은 강화하였다. 기존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차상위 이하 계층과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축소는 다양한 신차 출시로 인한 급격한 수요 증가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자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강하게 추진한다"며, "서울시는 기존 보조금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전기차 이용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강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긴급재난지원 사업의 2차 추가 공고로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예술인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1. 7. 7.) 기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공고일에 유효하며,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의 중위소득은 2021년 6월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더 많은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1차 사업 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예술인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지원받고자 하는 강동구 예술인은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방문(성내로 25 강동구청 4층 문화예술과) 또는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본 사업은 예술인 등록 및 소득 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10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지역 예술인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강동구청 문화예술과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규식기자

노원구, 코로나 검사소 대기시간 스마트 기술로 확 줄인다

서울 노원구가 CCTV 영상을 활용해 폭염 속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없앤다.

최근 4차 대우행 이후 코로나19 검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선별검사소 앞의 대기 줄은 수 십미터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휴대폰을 통해 대기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현장 대기에서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구는 임시선별진료소 현장의 CCTV영상을 구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을 개시했다.

단, 영상 속 대기자의 모습은 마스크 기술을 적용하여 모자이크 처리해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휴대폰에서 '노원 스마트시티' 앱을 설치하고, '스카이뷰' 서비스 선택 후, 임시선별검사소 'CCTV 보기'를 선택하면 검사소 앞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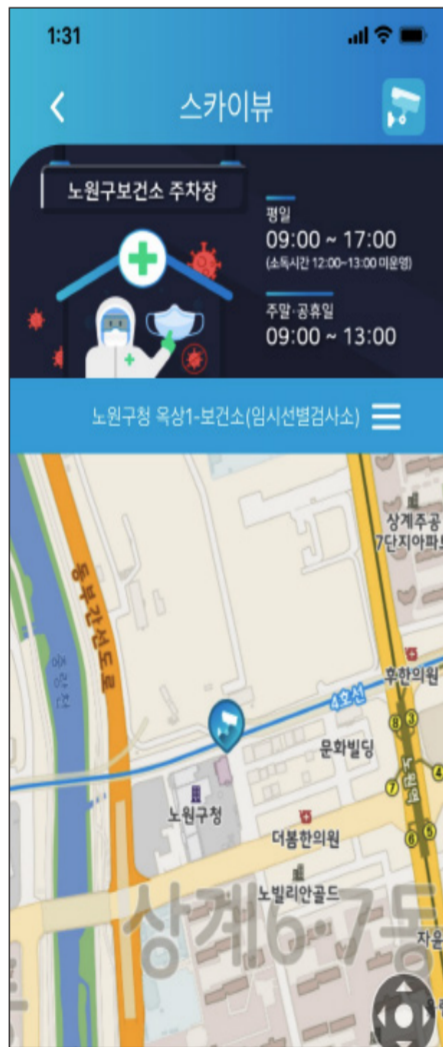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코로나 검사를 원하는 구민은 편안한 장소에서 대기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막대한 대기시간에 따르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검사인원이 한 곳으로 몰리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해 현장에서의 교차감염 가능성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노원구청 신관주차장과 노원구민의전당(舊 노원구민회관) 2 곳이다.

노원구청 신관주차장 검사소는 확진자 폭증에 따라 검사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후 12시부터 1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의 소독시간으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소독시간 오후 1시~3시)까지 운영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최근 코로나19 검사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길어진 대기시간과 더불어 극심한 폭염으로 이중고를 겪어 왔



다.

이에 구는 임시선별검사소 2곳에 시원한 생수를 1인당 1병씩 무료로 제공하는 힐링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또 햇볕이나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우산과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의자도 준비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구는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금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공원에 설치된 CCTV와 비상벨을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는 데 활용하고 있다. 먼저 비상벨의 방송 기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또 CCTV를 통한 관제를 강화하고 필요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수직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 조기 검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주민들이 검사소를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종로구, "어르신, 시원한 얼음물 받아주세요" 탑골공원에서 내달 15일까지

종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더위까지 더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탑골공원(종로99) 일대에서 '얼음물 지원'에 나선다.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0일 간이다.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 탑골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생수 1,000개를 배부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축소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탑골공원 일대에 몰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근 끼니 해결을 위해 일대를 찾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무료급식이 열리는 탑골공원 삼일문화북문에서 생수 지원을 실시 중이다.

배부 시간은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동안 폭염에 노출된 어르신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로 정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불가피하게 무더위

터 운영이 제한되면서, 더위를 피해 야외무더위쉼터 등을 오가야 했던 결실 우려 어르신의 반응이 뜨겁다는 후문이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코로나 비상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폭염으로부터 구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9월 30일까지 '2021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주요 간선도로 횡단 보도 주변 및 교통섬 등 47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살수차 8대를 수시로 동원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물 뿌리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호활동은 통장, 자율방재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가 맡았다. 재난도우미는 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폭염행동요령 또한 안내한다.

이밖에도 구는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을 위해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용품 전달하고, 야외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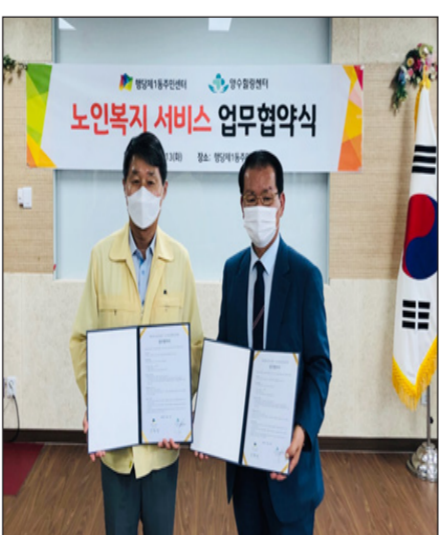


14:00~17:00 사이에는 근로자 쉼터 및 휴식 시간제 운영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영중 종로구청장은 "올 여름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곳곳에 약 80개의 그늘막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생수 지원 외에도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 주민을 살뜰히 살피기 위한 크고 작은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상순기자

성동구, 행당제1동 노인복지 서비스 위해 요양원과 협약(MOU) 체결해



에서 매월 10만원씩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요양원 입소 시 관청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되며 장기간 입소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의 부담이 높다. 이에 행당제1동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안을 강구, 요양원과 협력을 체결하며 지역 어르신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필재 행당제1동장은 협약체결에 앞서 지난달 23일 이웃사랑후원회장을 주민대표로 복지팀장과 실무까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역 근처에 위치한 양수힐링센터 요양원의 사전 답사를 실시, 요양원의 시설과 서비스를 꼼꼼히 살폈다.

함께 답사했던 주민대표 황영길 이웃사랑후원회장은 "사전답사로 요양원을 가봤는데, 양수 전철역에서 도보로 6~7분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교통편이 뛰어나며 최근에 지

어진 건물로 내부가 깨끗하고, 주위에 나무들이 많아 장박을 바라보면 마음도 상쾌해져, 우리 주민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종균 양수힐링센터 요양원 대표는 "현재 행당제1동에서 장기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이웃사랑후원회원으로서는 평소 행당동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필재 행당제1동장은 "우리동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요양원 대표께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요양원에 행당동 주민이 혜택을 받으려 신속하게 입소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 드린다"며 "해당 복지 대상 어르신들이 많은 이용으로 혜택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중구형 방과후 학교' 운영 위한 협약 체결

21년 2학기부터 지자체 직영 '중구형 방과후 학교' 시범 운영 시작

중구는 구가 직영하는 '중구형 방과후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 시범운영 학교인 봉래초, 청구초와 '중구형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

두 학교에서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중구 관내 9개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로 구 직영 방과후 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구형 방과후 학교'는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하던 방과후 학교를 중구 직영으로 전환함으로써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방과후 학교는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어 학교마다 수업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학부모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

이에 구가 직접 운영을 맡아 수업의 질을 대폭 강화하고 학부모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여 양질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다



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 추진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점과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학부모에게 부담이 됐던 교육비, 재료비 등은 구 예산을 투입해 무상으로 제공한다. 학부모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교과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고학년은 뮤지컬 영어와 창의력 수학, 눈술 국어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다.

구는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구청-학교 협력 모델인 '중구형 초등 돌봄'을 시작하여 지난 6월 관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구 직영 학교 안 돌봄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저학년을 중심으로 1천 명의 아이들이 중구형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나머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구청이 직영하는 '중구형 방과후 학교'에서 책임감있고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중구를 믿고 아이를 맡겨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돌보고 가르칠 것이다. 우리 아이들 모두 보편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양호 구청장, 중부교육지원청 권혁기 교육장, 봉래초 오시영 교장, 청구초 윤옥선 교장, 방과후 학교 학부모 추진단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상황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동작구,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다음달 31일까지 접수

교체한 민간 보일러 및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소유주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세입자 순이다.



동작구가 20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 추가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20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의 1/8에 불과하며 열효율 92% 이상으로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구는 올해 상반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에 총 4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해 총 2,486가구가 혜택을 받은바 있다.

여기에, 예산 2억 6천여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257대의 친환경 보일러(일반 가구 20만원, 저소득 가구 60만원 지원)를 보급할 예정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 기간 내 접수자 중 선순위자에게 지원하며,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순위자는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유주)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민간 보육원 및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소유주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세입자 순이다.

보조금 지급절차는 주민이 공급자(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가 구의 보조금 지급 확정을 받은 후,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주민이 공급자(대리점 등)와 계약 체결 및 보일러 설치를 완료한 후, 구에 보조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보일러 설치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기타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맑은

광둥용 맑은환경과장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으로 난방비 절약과 미세먼지 감소 등 도시의 대기 질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추가 모집에도 많은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식기자

인천 중구,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080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도입

코로나 출입명단 작성 무료전화 한통이면 OK!

이 번호로 전화해주세요. 출입 내역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080-336-1234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수집이용항목: 방문장소, 방문시간, 휴대전화번호
보유기간: 4주 후 자동삭제
수집기관: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 중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080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및 수기명부 작성의 부정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안심콜 서비스는 업소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이용자가 해당업소 방문 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방문일시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4주 후 폐기되는 시스템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추

가 확진자 발생 예방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인천 중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안심콜 통화료를 지원하며, 100㎡이하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업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안심콜 서비스가 소상공인 분들에게 통화료와 출입명부 관리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강동구, 강동구표 랜선 해외여행 '뽕나라 이웃나라 몽골 이야기'

뽕나라 이웃나라 '몽골'

2021. 07. 28. (수) 19:00~21:00

'뽕나라'로 함께 떠나볼까요~

대상: 강동구 거주 초등학생 1~3학년 자녀를 둔 가족 (12가족)

진행 방법: ZOOM(온라인)

신청 방법: <https://forms.gle/5h8Fipck35nLu8rT5>

내용: 몽골의 다채로운 문화, 유적의 생활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뽕나라'와 '뽕나라'의 교류를 만들기

문의: 02-471-0812

강동구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 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기 위해 몽골로 떠나는 랜선 해외여행, '다문화 알리미 뽕나라 이웃나라'에 참여할 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이심전심 행복프로젝트(다문화 알리미)를 진행한다.

강동구표 세계여행 '뽕나라 이웃나라, 몽골 이야기'는 7월 28일(수) 19시~21시까지 진행하며,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가족들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선정된 참여자는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문화 알리미 뽕나라 이웃나라'는 지역 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새로운 세계여행을 떠날 예정이며, 7월 28일에 여행할 나라는 몽골이다. 몽골 혁명기념일을 기점으로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몽골 최대의

민속·스포츠 축제인 '나담축제'와 유목민의 생활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zoom)으로 진행하고 선정된 참여자에 한해서 워킹스투를 통해 말 소품꽃이와 게르퍼즐을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문화 알리미 뽕나라 이웃나라'는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식개선 강사로 양성하여 진행한다. 구는 다문화 가족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원동력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문화교육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결혼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간접적이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의 지역 사회의 정착을 돕고, 강동구민의 다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부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부평소방서는 21일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줄길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은 사적인공간인 관계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어렵다.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준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이다"라며 "화재로부터 내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우리집엔 있을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왜 의무인가요? 2011년 소방법령을 개정하여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 이전의 기존 주택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분사하는 구조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도구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내장된 전동(전자)으로 동장정자가 직통 경보음을 울려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설치 대상: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등

설치 기준: 소화기 - 세대별,층별 1개 이상 / 단독 경보형 감지기 - 방,거실 등 구획된 실 마다

구입 방법: 인터넷 해당 또는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문의 관련: 지역 소방서에 문의

인천부평소방서

계양구, 2021년 하계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청소년자원봉사자 모집'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2021 하계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청소년자원봉사학교는 재난·안전교육, 계양산성 환경정화 활동과 문화해설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계양의 문화유산에 대해 깨닫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건강한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제별 교육, 캠페인 활동 등이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계 청소년자원봉사학교는 중·고등학생 청소년 봉사자로 1365자원봉사포털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은기자

2021 하계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대상: 중·고등학생

기간: 7월 21일 ~ 8월 28일

장소: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문의: 032-471-0812

미추홀구,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청년인턴 배치



인천 미추홀구는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수행을 위해 청년인턴을 배치했다.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은 포스트 코로

나 시대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개선 가속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데이터 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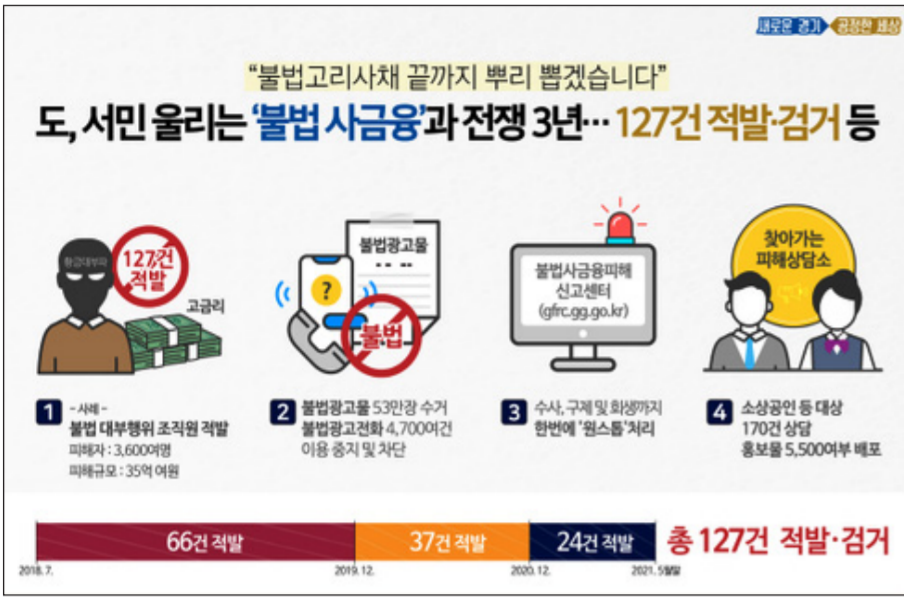
행정안전부를 통해 채용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12명은 2021년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공공데이

터 개방, 실측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경식 미추홀구청장은 "2021년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으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공공데이터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유주기자

경기도, 시민 올리는 '불법사금융'과 전쟁 3년...

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



경기도가 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경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특히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도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

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했다. 수사를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내 변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했다. 센터는 도민의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최정근기자

세종시교육청, 경찰과 학교시설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 결과 '이상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불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불시 점검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 사건,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 등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화장실 등 학교 내 취약 공간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경찰청, 세종경찰서와 합동으로 6월부터 7월까지 학교 내 화장실, 샤워실 등 2,799개소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불시 점검했다.

1차 전자파 탐지기를 통해 전체를 확인한 후 위험도가 높은 구역에 대해 2차적으로 렌즈탐지기와 육안을 통해 세심히 확인했다.

점검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및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불법 촬영 카메라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 촬영, 범죄입니다. 보는 당신도 공범!"이라는 문구와 관련법, 신고처 등을 담은 경고문을 제작·배포했다.

또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도록 작은 구멍을 막는 등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도 안내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자체 점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일괄 구입하여 학교당 1대씩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취약 공간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의원,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해법 찾기 머리 맞대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보릿대, 밀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영농부산물의 소각은 불법인데다 최근 보릿대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보릿대 소각 후 소각행위 금지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따라서 국 의원은 "도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와 농민, 행정이 모여 영농부산물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감담회 취지를 밝혔다.

먼저,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보리, 밀,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156,708호로 전국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농부산물의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병충해 방지 등의 관행상 이유로 경작지에서 불



법소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실태를 설명했다.

농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전주시 농민회 이경수 회장은 "농민들 입장에서 부산물 소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장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다음 모내기를 준비해야 하고, 특히 올해는 보리 수확기인 5~6월에 비가 자주 와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

워 당장 경작지에서 소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영농부산물의 소각 문제를 단순히 농민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모르고 불법 소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행정에서 영농부산물을 수거·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농촌형 노인일자

리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대학교 김세훈 박사는 "앞으로 영농부산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바이오 가스 플랜트를 설립해 영농부산물을 단순히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각희 농민은 "일본의 경우 일 반적으로 보릿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유기농퇴비로 활용하는 순환농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양질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새로운 밀, 보리 대체 소득작목을 발굴·육성하고 경관농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를 더 이상 농민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영농부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수집해 순환농법에 활용하거나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일기자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도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촬영 관련)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② (음주운전 관련)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③ (렌터카 운전 관련) 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

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④ 그 밖에도 개정법률은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 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도교통부는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국도교통부 어명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의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중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감지장치' 설치

민·관·경 협력...안전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앞장

울산 중구와 중부경찰서, 한국동서발전(주)는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몰카 촬영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공중화장실 6곳에 불법 촬영 감지장치와 안심 스크린(차단막)을 설치했다.

설치 장소는 공동발차국공원, 학생공원 3곳, 큐빅광장, 태화종합시장 공중화장실 6개소이다.

울산 중구와 중부경찰서(범죄예방진단팀)는 협의를 통해 유동인구가 많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했고, 한국동서발전(주)은 감지

장치와 안심 스크린 11식(상·하단)을 설치해 기부했다.

칸막이 상단의 적외선 감지 장치는 불법촬영을 시도할 경우 움직임을 감지해서 경고음을 내 이용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법촬영 감지장치를 점검하고 관리해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진주시, 쓰레기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실시

시청 청소과·읍면동 암행 단속 결과 47건 적발



진주시는 지난 20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시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시민수사대 등 478명으로 구성된 30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조됨에 따라 원룸촌과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배달음식 등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가 증가하고 있어 천전동, 중앙동, 성북동, 상봉동 등 4개소를 특별단속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12건 24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사안 1건 미만의 35건에 대해서는 현지계도를 실시했다.

시는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야간 합동단속뿐만 아니라 환경 공무직을 현장에 배치하고 이동식 CCTV를 설치해 지속적인 단

속을 실시한 결과, 쓰레기 불법투기를 다소 감소시키고 있으나 평소 적발이 잦은 곳에서 반복적인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단속에 참여한 시 관계자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지속 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불법투기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9년 289건, 5116만원, 2020년 425건, 7430만원, 올해는 7월 현재까지 210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하여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광수기자

의정부시 흥선동, G&B City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도심속 여유를 누린다

의정부시 흥선동 The G&B City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여가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다. 사업이 진행되는 3년간 'The G&B 프로젝트'사업은 여가복지 확대하고, 흥선동 주민들이 그린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시민참여 행정구현의 초석을 만들어 흥선동과 의정부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 흥선동 The G&B City 사업 소개

흥선동은 2019년에 직곡로 덩굴장미길 연장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13개 사업 ▲경민광장 교통섬 화단 정비, ▲백석천 식생블럭 관목 식재, ▲흥선로 계절꽃 식재, ▲서부로(교회선 철도변) 완충녹지 환경개선,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녹색캐튼 조성, ▲경민대 입구 계단 트리아트 벽화 조성, ▲책 읽는 도시 의정부'상징 조형물 설치, ▲직곡로 장미길 연장사업, ▲흥선로 도로변 계절꽃 식재사업, ▲직곡로 이팝나무 가로수길 조성, ▲호국로 가로변 꽃길 조성, ▲백석천 교량 난간 꽃길 조성, ▲서부로 사각화분 꽃길 조성 등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The G&B City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구도심 지역에 푸르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관의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수혜 주민의 수도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자인은 대나무와 단으로 하고, 미스김라일락을 식재하여 지난해 조성한 호국로 가로변 꽃길 조성사업과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내년 봄 미스김라일락이 개화하면 주민들의 눈과 코를 향기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민들의 참여와 녹지관리
흥선동은 시민 누구나 꽃과 나무를 가꾸는 시민 참여형 녹화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꽃길 입양사업을 추진하여, 관 위주의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돌보고 관리하여 스스로 아름답고 푸른 향기가 나는 흥선동을 만들고, 애향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흥선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10개 단체에서 흥선동 G&B City 프로젝트 사업을 1개 이상 담당하고, 사업자와 가까운 구성원을 '꽃길 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주민참여 녹지관리에 앞

장서고 있다.

또한 2021년 4월 의정부시 주관으로 각 동에 마련한 기념식수공원 '희망의 숲'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조성되는 녹지로, 주민들의 소망과 이야기를 담아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이다. 흥선동 '희망의 숲'은 경민광장 도로변에 조성하여 매화나무, 자귀나무, 단풍나무 등 주민들의 소망이 담긴 소중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흥선동 G&B City 대상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꽃과 나무가 죽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일이다. 흥선동에서는 2021년 G&B City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여 꽃과 나무가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수·정정·소독·시비 등 총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 흥선동 G&B City 프로젝트의 7월 추천 장소는?

흥선동 G&B City 프로젝트 7월 추천 장소는 의정로 미스김라일락

대나무 화단을 지나 백석천 변 식생블럭 감상 후 안골계곡을 올라 소풍길 1코스(명상의 길)를 탐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녹음의 계절 7월달에 현재 푸른 나뭇잎이 어우러져 보도에 시원한 그늘막이 형성되어 있다. 시원한 하천변을 걸으며 식생블럭에 자리잡은 화초들을 감상하고, 안골계곡의 정취를 감상한 뒤 이어진 소풍길 1구간으로 진입한다.

비교적 낮은 경사로 이루어진 소풍길 1구간은 직동공원-원도봉산 초입을 지나는 코스로,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무리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탐방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부부 또는 연인이 함께 걸어보면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이영석 흥선동 자치민원과장은 "The G&B City 프로젝트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흥선동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도심속을 가꿔, Green & Beauty City를 만드는 것이 '푸른마을 흥선'의 궁극적 의미"라며, "급격한 도시화로 도심내 녹지공간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흥선동 The G&B City 프로젝트가 구도심에 밝고 아름다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흥선동 G&B City 대상지와 더불어 의정부시의 대표 탐방로인 소풍길을 가족과 함께 걸으며 도심속 여유를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성남문화재단, 2021 무용인 한마음축제 in 성남

성남문화재단이 국내 무용계를 대표하는 무용 단체와 무용가들이 참여하는 2021 무용인 한마음축제 in 성남을 오는 9월 1일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한다.

성남문화재단과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공동주최 및 주관하는 이번 2021 무용인 한마음축제 in 성남은 무용 장르의 대중화와 무용 공연을 통한 예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내 대표 춤 축제다.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무용 장르를 총망라해, 화려한 군무부터 예술성 넘치는 독무, 앙상블이 돋보이는 파드되(발레 2인무)까지 무용의 모든 것을 해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는 국내 최정상급 무용가와 무용단체 7개 팀이 총출동한다. 먼저, 한국무용 부문에는 안무가 이정운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시립무용단이 황혼에서 새벽까지 자연의 색을 담은 춤과 음악의 향연을 담은 작품 '운무(雲霧)'를 선보인다. 현대무용 부문에는 독창적인 안무와 예술성으로 전 세계에 신(新)한류 열풍을 이끄는 엠비유어스댄스컴퍼니의 'Fever', 국내 대표 현대무용가 김설진의 '낙서', 뜨거운 열정과 패기로 한국 현대무용계의 흐름을 선도하는 LDP무용단의 'Mob'을 만날 수 있다.

또 발레 부문에는 국립발레단이 '탈레스만 파드되'를, 유니버설 발레단이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 파드되'와 군무를 공연하고 과감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여온 김용걸 댄스 시어터가 'Obliviate(망각)'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해설은 김민정 전(前) KBS 아나운서가 맡는다.

특히 이번 공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용 음성해설 서비스를 제공



하는 무장애(배리어 프리, Barrier-free)공연으로 진행한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와 연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연 관람 전 무대의상과 소품 등을 직접 만져보는 '터치투어'와 공연 중 헤드셋을 통한 음성해설을 지원해 무용 공연의 감상과 이해를 돕는다. 이날 음성해설사로는 현대무용단 고블린파티의 안무가 겸 무용수 이경우와 와이즈발레단 김길용 단장 등이 참여한다.

티켓은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성남아트센터 및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가격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한 자리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한다.

이성욱기자

군포 청년날개인턴, 청년의 날개를 달아라!!

군포시가 관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군포 청년날개인턴' 32명이 이번 주(7월 1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오는 12월 24일까지 군포 시청을 비롯해 백신에방점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어린이도서관 등 소속행정기관과 군포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7월 20일에는 한대희 시장과 청년날개인턴들이 참석한 오리엔테이션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당초 대면에서 줌(ZOOM)을 통한 비대면으로 변경해 개최됐다.

오리엔테이션에서 한대희 시장은 "청년날개인턴 사업은 다양한 현장 실무경험과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역량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 시장은 "인턴 여러분 자신들의 힘을 믿고 미래를 위해 힘찬 날개짓을 시작해달라"며, "군포시는 앞으로도 부단히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날개인턴들은 각자 배



치된 사무실에서 줌을 통해 자신들을 소개하고 포부를 밝히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전문가로부터 직장생활에 필요한 비즈니스 매너에 관한 강의로 들었다.

방송영상미디어를 전공한 청년날개인턴 김재원씨(뉴미디어팀 근무)는 "전공을 살려서 시민들에게 군포시의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턴십을 통해 현장업무 경험을 쌓아 추후 성

공적인 취업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포 청년날개 인턴십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심각한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한대희 시장의 의지에 따라 군포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체험형 청년인턴십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일자리기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종규기자

안산시여름방학을 맞아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에서 무더위를 피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영상 편집 특강을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과 고학년(5·6학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달 26일부터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홈페이지를 통해 저학년은 7명, 고학년은 10명씩 각각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선정된 학생은 다음달 10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주 2회씩 총 8회에 걸쳐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각종 영상편집 기술을 배울 수 있다.

특강은 연령대에 맞춰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및 사진 편집방법, 브이로그 제작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직접 영상을 촬영 및 편집하는 작업을 통해 전문적인 영상을 만들어보고, SNS에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체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정부기자

오산시,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센터 1학기 종료 간담회 개최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틈새돌봄 간담회

“21.7.21.(수) 17시 ZOOM영상회의”

- 틈새돌봄 참여 소감 나눔** - 간단한 자기소개, 틈새돌봄 참여 소감
- 운영사항 공유** - 운영 노하우 공유, 건의사항 (오산고현초, 원당초, 세미초순)
- 놀이 프로그램 공유** -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인기있었던 놀이, 놀이감

아이, 부모, 마을이 함께자라는 오산시 틈새돌봄

오산시는 지난 21일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생태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아침, 방과 후 틈새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선생님 및 관계자들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 영상회의로 진행했으며, 오산시와 초등학교 간 상호협력 등을 통해 운영하는 오산고현초, 원당초, 세미초, 세미초 아침 틈새돌봄 선생님과 죽미마을 8단지 방과 후 틈새돌봄 선생님이 참석해 1학기 틈새돌봄 운영 소감과 돌봄 노하우를 공유하고 여름방학 돌봄과 향후 더 나은 틈새돌봄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오산교육재단 학부모 강사와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강사로 구성된 틈새돌봄 선생님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아동들이 돌봄 교실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아동 관리 경험을 공유하며 아이들이 선호하는 교구와 1인 놀이감, 프로그램 구성방안 등 향후 틈새돌봄 사업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다.

오산고현초 아침, 방과 후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김점순 돌봄선생님은 “늘 교실 방역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하고자 돌봄 선생님과 힘을 모아 틈새돌봄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름방학에도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오산형 틈새돌봄 우수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오산고현초(아침, 방과 후, 방학) ▲원당초(아침) ▲세미초(아침) ▲죽미마을 8단지(방과 후, 방학) ▲오산대역엘크루(방학)에서 틈새돌봄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방학부터 ▲세교호반베르디움(방학) ▲죽미마을 10단지(방학)에서 신규 운영할 방침이다.

오산시가 추구하는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아이자람+부모자람+마을자람)'은 온 마을이 돌봄공동체가 돼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의미로 함께자람센터(다함께돌봄) 상시돌봄과 틈새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남주기자

가평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기도와 가평군에서는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202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마을건강케어)"을 운영 중에 있다. '마을건강케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은 더는 개인

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우울 증세를 경험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과거와 달리 몸이 아플 때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건강케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마을건강케어' 사업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시에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대상자에게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기준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내 정신질환자의 발굴과 위기개입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코로나19 심리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또 다른 이야기

초등고학년 영상 편집 교육
미디어라이브러리 여름방학 특강

기간 및 대상
-기간: 21. 8. 10(화) - 21. 9. 2(목)
(매주 화·목 총8회) 16시 - 18시
-대상: 초등학교 5-6학년 10명

강사
-왕혜순 선생님

운영방법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접수방법
-2021. 7. 26. (월) 9시부터 미디어라이브러리 홈페이지 (be.ansan.go.kr) > 문화행사 접수

문의: 031-461-3890

광명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추진 박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 거칠 것

광명시는 20일 광명시 시정협치협의회가 '만25세 이상 20만원을 지급하는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안'을 채택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평생학습장학금 지급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20일 시정 대화의실에서 광명시 시정협치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정협치협의회 위원 15명이 참석했으며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방안 운영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정협치협의회는 회의에서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방안(만 25세 이상 시민에게 20만 원 지급)'을 채택하고 시민공론단이 속의과정을 통해 결정한 사항을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추진에 반영할 것을 시에 권고했다.

광명시는 시정협치협의회 권고에



따라 만 25세 이상 20만 원 지급안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25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방안 공론화 요청에 따라 4월 2일 광명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3

차례의 회의를 거쳐 공론장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만 13세 부터 60세 이상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공론단 80명을 모집했으며, 6월 26일 시민공론장을 개최했다.

시민공론장에는 75명이 참석해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최종투표를 거쳐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25세 이상 20만 원' 지급안을 선정했다.

한편 광명시는 시정협치협의회, 협치추진단, 시민참여커뮤니티 등 민관협력 기구를 운영해 민선 7기의 주요 시정과제인 시민참여, 자치분권 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올해 3월 조례개정을 통해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속의적 합의 과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전순희/기자

안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

안양시청소년재단에서는 예비청소년지도자의 기회 확대 및 진로 자원을 위해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참가자격	청소년 관련학과 재학생 및 청소년 활동에 관심있는 대학생 누구나												
응모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 (gkrls3679@ayf.or.kr) 제일 접수 후 담당자에게 접수사항 유선 통보 ☎ 031) 470-4794 (☎일수사항)												
진행일정	○ 공모기간: 2021. 7. 1(목) - 8. 13(금) ○ 심사기간: 2021. 8. 1 - 13 - 1차 심사: 서면심사 - 2차 심사: 발표심사 ○ 결과발표: 2021. 8. (예정)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 통보												
응모주제	청소년 사생활 활성화,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4차 산업 관련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 포스트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 안양시 뉴딜사업 관련 프로그램												
응모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 (gkrls3679@ayf.or.kr)												
시상내역	<table border="1"> <tr> <th>수상부문</th> <th>인원</th> <th>상금</th> </tr> <tr> <td>최우수상</td> <td>1(팀/명)</td> <td>500,000원</td> </tr> <tr> <td>우수상</td> <td>1(팀/명)</td> <td>300,000원</td> </tr> <tr> <td>장려상</td> <td>1(팀/명)</td> <td>100,000원</td> </tr> </table>	수상부문	인원	상금	최우수상	1(팀/명)	500,000원	우수상	1(팀/명)	300,000원	장려상	1(팀/명)	100,000원
수상부문	인원	상금											
최우수상	1(팀/명)	500,000원											
우수상	1(팀/명)	300,000원											
장려상	1(팀/명)	100,000원											
상세내용	안양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www.ayf.or.kr)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옥상부 관람객 휴게쉼터 조성

동두천시는 소요산국민관광지내에 위치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옥상부에 관람객을 위한 휴게쉼터를 조성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3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탄생한 박물관 옥상정원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소요산 녹지속 힐링 쉼터로 만들어졌다.

주요 시설로는 관람객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위해 나무벤치를 설치하고 옥상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를 마련했으며, 불거리 제공을 위해 올해 안에 박물관과 관련된 전시조형물도 설치할 예정이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은 박물관 전시실을 둘러본 후 4층 휴게쉼터를 이용해 박물관 주변 소요산 및 마차산을 전망할 수 있으며, 자연과 벗삼아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휴식을 마음껏 취할 수 있게 됐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관람객 누구나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전쟁박물관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심신을 달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광주시 의용소방대, 보훈시설 등 방역 활동에 적극 앞장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보훈시설 등 방역취약 시설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는 지난 19일부터 연료하진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관내 보훈회관을 비롯해 6:25 잠전자회, 월남참전자회 등 9개 보훈단체 사무실, 청년기업이 상주해 있는 청년창업보육센터,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한남호·임종분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모든 대원들이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동현 시장은 "항상 지역 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해 주시는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 덕분에 광주시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안양시청소년재단은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격은 청소년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 청소년 관련학과 재학생이며, 공모주제는 ▲안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 시설 활성화 방안 ▲4차 산업 관련 청소년 활동 ▲포스트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 등이다.

재단은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작품을 선정한 후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 작품을 시상(최우수상 1, 우수상 1, 장려상 1)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요강은 안양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길은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 대학생들의 자유롭고 신선한 발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비청소년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종균/기자

양평군,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 '50.60 청소년 학습지원단' 참가자 모집

양평군은 2021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50.60 청소년 학습지원단' 참가자를 모집한다.

'50.60 청소년 학습지원단'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경력자들을 채용하여 지역 아동 청소년 센터와 연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총 6명으로 지역 청소년 아동 센터 5개소 학습지도 전담 강사 5명과, 4개소를 주1~2회 순회

하며 체육활동 지도를 하는 강사 1명이다. 모집 대상은 관련 자격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력자들로 경력 관련 서류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2021년 8월부터 4개월간 하루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20일~26일 5일간이며 양평군청 별관 4층 일자리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양평군 홈페이지 알람마당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용/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포항시이강덕시장, 김부겸 국무총리에 지진피해 회복 대책 적극건의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1일 포항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진 당시 소파관정을 받았지만 피해가 매우 큰 공동주택에 대한 전과 수준의 피해지원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추진을 건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과 함께 특별히 현안사항 건의의 자리를 마련해 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상황과 피해지역의 특별재생사업 현황을 직접 브리핑했다.

이어서 오는 8월 말까지 접수가 마감되는 지진피해 신청과 관련해 현재까지 8만여 건의 피해가 접수되고 4차 지원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피해조사 및 지원금 산정 시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진 당시 피해가 많아 거주

에 불안을 겪고 있는 흥해지역과 시내 일부 공동주택의 주민을 위해서 전과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아울러,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시민안전에 위한 지열발전 부지 안전관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열지진연구센터 건립, 지진피해 지역의 회복을 위한 해양복합전시센터 및 공동체복합시설의 건립, 방재공원 조성에 따른 안전체험관 공모사업 선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총리는 포항지진 직후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여러 차례 포항을 방문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피해주민들의 어려운 상황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피해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피해가 크다보니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며, "피해상황과 거주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과 수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진 당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전과관정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 4~5월 2회에 걸쳐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가 이뤄졌다.

김기현/기자

달고 시원한 재산수박 먹고 무더위 잊어요!!

유 기 질 퇴 비 사용, 당 도 높 고, 식 감 뛰 어 나 -

장마가 물러가고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연일 찜통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럴 때는 맑은 계곡아래 발 담그고 시원한 수박 파티가 제일인 듯하다.

경북 봉화군에는 정량산 재산수박 출하가 한창이다.

재산수박은 해발 400~500m 준고랭지의 마사토에서 재배되어 큰 일교차와 많은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며 착색과 저장성이 뛰어나 꾸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재산면은 봉화군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청량산(870m), 미림산(686m), 조산봉(840m), 장군봉(1,110m) 등이 솟아 인야가 전체 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동천과 동면천이 시가지를 지나면서 특이하게 북쪽의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이를 하천 주변을 따라 비옥한 농경지가 발달하여 수박이 재배되고 있다.

재산수박은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며, 특히, 벌채목 등 임산부산물과 콩대, 깨대 등 농산부산물을 발효시킨 재산면 지역의 전통적인 자연산 퇴비를 사용하여 맛과 당도가 평균이상이므로 육질이 단단하고 그 맛이 뛰어나다.

봉화군의 서북쪽인 물야, 춘양, 소천 지역에는 도처에 사과밭이 넘쳐나듯이, 재산면에는 수박밭을 쉽게 볼 수 있다. 봉화군의 수박재배 500여 농가 400여 ha 중에 절반 이상이 재산면에서 생산되며 재산수박이 봉화수박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수박재배에 대한 기록



은 조선시대 1611년 허균이 집필한 도문대작(屠門大嚼)에 수박을 서과(西瓜)라하여 고려 때 홍다구(洪茶丘)가 처음 개성에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재산수박의 유래는 40~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87년 재산면 동면리에서 남민우씨가 처음 재배하면서 재산수박의 규모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청량산 재산수박은 준고랭지인 해발 400m의 재산면 일대에서 생산되어 과육이 단단해 저장성이 뛰어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천혜의 재배환경에서 생산된 재산수박은 개당 10kg이 넘는 대형수박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240ha 재배된 재산 노지수박은 8월 중순까지 출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봉화군은 재산수박의 명품 육성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한기 수박재배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수정용 벌 및 연작피해방지 활성화

지원, 포장재 지원, 폭염대비 햇볕을 55% 차단 하는 녹색 차광망 지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수박밭의 점적관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적정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해 왔다.

2018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10억의 사업비로 비파괴당도 측정기와 자동종량기 등 최신 자동화시설을 갖춘 재산수박 선별장을 건립해 연산된 수박을 전국 30여 개소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도 완료하여 재산수박의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가상이변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수해예방을 위해 지난 2015년 82억원을 들여 남면저수지를 완공했다. 총저수량 57

만4천톤 규모의 저수지가 완공됨으로써 124ha의 경작 농민이 상승적인 가뭄에서 벗어나 물 걱정 없이 수박재배뿐만 아니라 소규모이긴 하나 고추 등 타작물 농사도 어려움 없이 짓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재산수박은 소비자들과 도소매 상인들 사이에서 꾸준한 구매 의욕을 자극하고 좋은 선호도를 보이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2000년에는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박으로는 유일하게 경상북도 우수농산물에 등극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20t(2천400개)이 러시아 사할린으로 수출이 되었으며 지난해 초복에는 경북 농협에서 도내 100세이상 고령농업인의 격려품으로 재산수박이 선택되기도 하였다.

재산수박은 수박공선출하회가 주축이 되어 하우스 수박은 7월초에서 7월말까지 그리고 노지 수박은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당도 11브릭스 이상, 10kg의 최상품 고품질 수박을 생산한다. 지역에서는 봉화농협 하나로마트와 재산지점 하나로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임태항 봉화군수는 "우리 봉화군은 수십여년간의 수박재배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수박 특유의 아삭함과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수박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명품 수박을 재배하기 위한 군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의 농특산물로 농가 소득 창출에 일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문경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문경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승용 105대, 화물 25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400만원이고 초소형은 70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2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2021년 7월 19일 기준 3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

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계약하면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에서 3개월 이내 출고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반식/기자

제 5 기 경 산 시 도 시 재 생 대 학 입 학 식 개 최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1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수강생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경산시 도시재생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시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사업에 대한 주민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지역 내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 및 운영 프로그램의 발굴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교육은 시실의 지속 가능한 공간 운영 계획을 주제로 7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민들을 직접 이끌어 나갈 교육은 경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안전석 센터장, 대구한의대학교 건축디자인학부 정지석 교수, 경일대학교 건축학과 이광현 교수가 맡았으며 지역대학에서 지원한 전공 대학생들과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들이 도시재생대학 기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한다. 입학식은

국민의례, 최영조 경산시장 축사 및 내빈소개, 단체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식이 끝난 이후에는 지도교수의 도시재생대학 소개와 도시재생 뉴딜 특강이 이어졌다. 더불어 앞으로 진행될 수업 내용과 사업지에 대한 설명이 조별로 이루어졌고,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사업지역별 조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입학식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경산시에서 진행하게 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코로나로 인한 우려 속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경산시도시재생대학의 운영진과 경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계자들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지침을 따라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및 배치, 개



인 거리감 설치, 방역 지킴서 배부 등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어려운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해 재생대학에 참여해

주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재생대학을 통해 주민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영주시, 도심 삼각지공원 바닥분수 개장



경북 영주시는 오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휴전동에 위치한 삼각지공원 바닥분수를 개장한다.

삼각지공원 바닥분수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252㎡ 규모에 터널분수 2면을 비롯한 6종, 7개 분수형 물놀이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바닥분수는 우천시와 매주 월요일에는 분수시설 점검과 정비를 위해 운영을 하지 않는다.

시는 시설을 찾는 아동 및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해가림 시설(공골텐트) 7동을 설치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수경시

설 안전관리 요원 2명도 배치계획이다.

시설 출입아동과 보호자는 손 소독실시는 물론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콜체크인 또는 방명록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민이 잠시라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체온측정 및 콜체크인, 방명록 작성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현/기자

월항면, 주민자치센터 "힐링요가교실"개장

성주군 월항면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1일 오후 2시 복지회관 2층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수강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힐링요가교실」 첫 수업을 시작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요가교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지친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위로를 위한 과정이 될 것이며 7.21 ~ 10.29기간 중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 2회(수, 금) 운영될 예정이다. 꾸준한 요가운동은 평소 잘못된 습관으로 변형된 자세를 교정하고 심신안정에 도움이 되며 유연성을 길러준다.

한편,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민감한 시기인 만큼 수강생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이상복 주민자치위원장은 "바쁜 영농으로 지쳐 있는 지역민들이 요가교실에 적극 참여하여 취미생활 영



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동 월항면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여 있는 피로감을 풀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행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김천시, 'Happy together 김천' 운동 추진협 의장단회의 개최

김천시는 지난 1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Happy together 김천」 운동 추진협의회 의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도 상반기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특히 추진협의회 자체사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 앞서 김충섭 김천시장은 "상반기에 많은 사업을 펼치고 성황리에 마쳤는데, 추진협의회 의장단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하반기 사업에도 많은 참여와 협조, 시민 중심의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을 위해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다"며 당부했다.

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인 윤옥현 김천대학교 총장은 "기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을 위해서는 우리 의장단의 의

지가 중요하다. 빈틈없이 자체사업을 준비·추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자."며 의지를 다졌다.

김세기/기자



울산시, 우수한 산업기반 관광자원화 '첫 발'

관내·외 유관 기관 및 관광업계들과 공동 마케팅

울산시가 관내·외 유관기관 및 관광업계들과의 유기적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험형 여행상품의 공동 개발로 지역 관광 산업 특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마케팅은 항공기반시설과 관광 콘텐츠의 융·복합을 통한 내륙관광 활성화와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반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산업수도 울산이 가진 우수한 산업시설을 홍보하고 지역 관광업계의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광 수용 태세 : 관광을 할 때,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해하거나 자기 것으로 삼는 태도나 자세. 개발상품은 수도권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이동 기반 교육형 관광상품이다.

울산시의 다양한 산업자원과 주요 관광지를 체험관광 형태로 울산시와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담여행사 연합이 협업해 역사와 산업이 공존하는 울산의 관광자원을 진로체험형 콘텐츠 형식으로 구성했다.

상품 개발에는 ▲국립항공박물관 ▲한국항공공사 울산공항과 서울지역본부 ▲울산 전담여행사 연합(동백, 굿모닝, 로망스, 아름, 코레일항공) ▲관내 인바운드 여행업체 유엠아이티(UMIT) ▲월간항공 ▲관내 관광호텔(롯데, 라한, 머큐어 엠버서더, 롯데시티, 스타즈, 다음 등) ▲드론산업 주도업체(유시스), 자율주행 모빌리티(그린카기술센터) 등이 참여했다.

울산시는 개발된 상품의 현실성 검증 위해 지난 7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전담여행사연합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현장답사를 실시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현장답사 후에는 전략회의를 갖고 고객과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

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신규 관광상품 개발 시 관광목적지의 매력과 기반(인프라) 여부를 더욱 세심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울산의 강점인 산업연구 분야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신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향후 관광상품의 신뢰성 확보와 질적수준 유지를 위해 국립항공박물관, 한국항공공사, 전담여행사 연합,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7월 중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교육청과 연계해 반구대암각화 등 울산의 역사문화자원을 결합하는 테마과정 등으로 상품을 확대 예정이다.

울산시는 “산업도시 울산”과 “관광도시 울산”의 매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이번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의 매력과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지속적인 협업으로 진로체험 등에서 겪는 지역 청소년과 수도권 청소년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지속적인 협업으로 진로체험 등에서 겪는 지역 청소년과 수도권 청소년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창원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마산항친수공간위 '수탁협약체결'



창원시는 21일 오전 10시 점건실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마산항친수공간 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김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산항 친수공간이 항구도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위·수탁 범위는 서항지구 친수공간과 구항 방재연덕 친수공간 및 방재시설이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분담한다.

서항지구 친수공간은 서항부두~제1부두~중앙부두 일일 22만㎡ 부지에 498억원이 투입돼 생활체육 및 레포츠시설, 물놀이대 및 야외무대, 산책로 등을 조성 중이다. 전체구간은 올 연말 준공 예정이지만, 일부 구간(레포츠·중심)은 조성이 완료되는대로 이관받아 개장된다.

구항 방재연덕 친수공간은 태풍에

방을 위한 매립지(방재시설 포함) 5만8천㎡에 64억원이 투입돼 야외무대, 산책로 및 편의시설 등을 올 연말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김혜정 청장은 “사업은 국내 최대 해양친수공원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업무협약(MOU) 체결 후 협의회 등을 거쳐 조경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제 결실을 맺는 과정에 있어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하여 항만친수시설이 주민의 여가선양과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예산지원과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하겠다”고 전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마산항 친수공간 조성으로 도심속 부족한 쉼터와 산책로가 확보돼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체감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친수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보완과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의령군, '토요애유통 정상화 추진위원회' 개최



의령군은 지난 20일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요애유통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는 행정, 군의원, 농·축협이 유통전문가와 농업인단체 대표 등 14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토요애유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논의를 통해 의령군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구성되었다. 추진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토요애유통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토요애유통의 재정현황, 사업현황, 부실경영원인, 경영정상화 추진 애로사항 등 일반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차기 회의 때 중점적으로 논의할 토요애유통 경영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강영훈기자

다음 2차 회의에서는 토요애유통 부실경영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과 운영자금 조달방안 등을 주제로 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선출된 황성철 위원장은 “토요애유통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토요애유통의 설립 취지를 되새기며 군민과 지역농업인의 신뢰를 극복하는데 우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태완 의령 군수는 “토요애유통의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마음을 담아 담담하게 준비하자”라며 “의령군의 최종 목표는 정상화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경남연구원-영남통일교육센터 업무 협약 체결

통일교육 등 상호 협력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경남연구원(원장 홍재우)은 영남통일교육센터(센터장 박재규)와 20일 오전 경남대학교 본관 4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격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논의 확산을 위한 인적교류 ▲북한 및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통일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공동 연구 ▲조직의 발전 도모 및 홍보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정진 영남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은 “경남연구원과 통일교육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통일을 향한 공감과 소통으로 경남연구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욱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통일교육에 앞장서는 영남통일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든든하다”며 “향후 영남통일교육센터와 함께 통일이카데미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부산 북구,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쾌거

부산 북구는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북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 받아 오는 10월까지 관내 책방과 마을극장, 도서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도시로서 그 위상을 한껏 펼칠 예정이다.

먼저 7월에서 10월까지 지역 책방과 마을극장, 사립도서관에서 '책, 바깥으로 나오니 좋다!'라는 주제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가강연 △영화토론 △신문학 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9월부터 10월까지 북구립도서관(화명도서관, 만덕도서관, 금곡도서관) 인근 공원에서 독서의 계절 가을에 걸맞은 야외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독서대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북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궁영기자

거창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사진신고 기간 운영

2021 동물등록 사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연신고 7.19.~ 9.30.
집중단속 10.01.~ 10.31.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연신고 대상	자연신고 방법
[동물등록] - 주력 준주력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력 준주력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등록]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10월 이내 - 등록동물물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신고]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양도) 시 소유자가 개명할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30일 이내 - 잃어버린 동물물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시력장치(눈)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목아더 등 동물관련 공문시달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내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 ER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거창군은 반려동물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사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력·준주력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주력·준주력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경우에도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물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시력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거창군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

며, 동물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면 지역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맹견의 경우 읍·면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되는 사진신고 기간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사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동물 등록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미등록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병철기자

거제시 환경사업소,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거제시 환경사업소에서는 지난 20일 환경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장마가 끝나고 열돔 현상에 따른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건설현장의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6

개 사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 졌다.

신태진 환경사업소장은 공사근로자에 대하여 열사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물, 그늘막 및 휴식시간 제공 등의 온열질환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고온에 따른 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강영훈기자



전북도, 폭염 특보에 따라 재난 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발령



을 주시하고, 소관부서별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관리와 취약지역 예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매일 시군별 마을방송, 문자방송 등을 실시하여 폭염 취약 시간에 주민들에게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도 TV, 신문사를 통해 홍보를 적극 추진중이다.

특히 취약계층 재난도우미를 통한 폭염취약계층 전화 및 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도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30개소의 폭염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방역관리자를 두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무더위쉼터(실내 5,372개소, 야외 471개소)를 운영하고 그늘막 688개소, 에어커튼 183개소 등 폭염저감시설 운영은 물론 필요 시 시군 여건에 따라 살수차 운행 및 얼음배치 등의 추가 조치를 실시하여 폭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건설분야에서도 야외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무더위 휴식제를 권장하고, 야외 건설사업장 행동요령 안내 및 점검을 통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3명으로 사망자는 없으며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폭염상황에 따른 비상태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축산분야 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폭염 본격화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예방 및 선별진료소 등 야외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며, 도민 스스로도 기상예보에 관심을 갖고 낮 시간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양산과 물병을 준비하는 등 폭염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일/기자

"폭염으로 잃기 쉬운 면역력, 광양매실로 챙기세요"

광양시가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갈증 해소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 광양 대표 특산물인 매실을 활용한 식품을 홍보한다.

여름철엔 땀이 많이 흘려 수분이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 동의보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갈증 처방이 새콤달콤한 매실이다.

광양은 백운산의 맑은 바람과 섬진강의 풍부한 수원, 최고를 자랑하는 일조량 등 매실 재배의 최적 조건을 갖춘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다.

또한, 매실을 활용한 농축액, 장아찌, 매실쿠키, 매화빵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공식품이 다양하게 개발·생산되고 있다.

매실은 구연산과 유기산, 비타민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해독작용이 뛰어나고 잦은 스트레스를 피로 해소에도 탁월하다.

특히, 매실의 신맛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활동을 활발하게 일으켜 여름철 식중독이나 배탈 예방에도 좋다.

중국 후한 말, 영웅 조조가 삼복더위에 군사를 이끌고 행군하던 중 "산을 넘으면 매실나무 숲이 있다"며 갈증을 잊게 했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상상만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효능을 발휘한다

또한, 올림픽을 앞둔 일본에서는 침분말을 이용한 코로나19 간이 검사를 하는데, 공황 검사부스에 매실을 절인 우메보시 사진을 붙여 놓을 만큼 신선한 코로나 검체 채취용으로 쓰이고 있다.

그밖에 친환경 광양 매실과 100% 우리밀을 이용해 수제로 만든 광양매화빵과 매실쿠키도 건강한 간식으로 인기가 높다.

다양 청매실농원에서는 10만 원 이



상 구매고객에게 홍쌍리 명인의 첫 시집 '행복아 니는 누하고 살고 싶냐'를 선착순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은 차가운 음료나 음식을

많이 찾아 먹게 되면서 배탈이 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이다"며, "광양의 햇살과 바람이 키운 광양매실과 다양한 가공식품들로 건강한 여름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 버스업체 현장실사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시내버스업체인 태원여객·유진운수 분사(영산로

600)에서 외부감사 및 노선검증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장실사는 감사기관과 전문

영역사가 진행하는 가운데 재무실사를 통한 손실규모의 정확한 파악 및 손실원인·경영실태 분석 등 회사 경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분석하고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1차 공론화위 회의에서 시내버스업체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장실사에는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한다.

회사측 경영자료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버스 업체를 방문하면 준비된 감사장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론화위·시의회 특위·법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전문가의 현장브리핑은 현장

실사 기간 동안 매일 진행된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의 동시 방문은 불가하다.

공론화위는 오는 8월 중 6차 회의에서 외부감사 최종보고회를 갖고, 감사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며, 최종보고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는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운행계통 및 운송원가를 검증하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 중이다.

공론화위는 시민의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오는 12월말까지 시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동일/기자

전남도-한국맥도날드, 로컬푸드 공급 확대 앞장



전라남도는 20일 한국맥도날드, ㈜오투기, 델몬트, ㈜금화와 함께 전남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남산 로컬푸드 소비촉진과 판매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맥도날드 남약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 강석호 델몬트 대표이사, 이승준 ㈜금화 회장, 강정학 ㈜오투기 상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맥도날드는 전남산 로컬푸드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우수 장출, 우수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판매 활성화에 협력한다.

㈜오투기,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 ㈜금화는 농축산물 식재료, 행사 기념품, 명절 선물 등에 전남산 로컬푸드를 판매하고, 소비촉진에 앞장선다.

전남도는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에 필요한 생산, 가공, 유통을 지원하며, 홍보마케팅에 적극 협조한다.

협약식에선 무안 출신인 최현정 맥도날드 총괄셰프(이사)가 전남산 친환경식재료로 만든 햄버거 시제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이사는 "전남지역 농어민이 정성껏 키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전국 맥도날드 고객에게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고객에게 전남산 농축수산물을 소개하고, 농어민의 매출이 증대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친환경 농산물과 최고 먹거리 1번지"라며 "맥도날드를 통해 전남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맥도날드 고객이 만족하고 다시 구매하도록 고품질 전남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영암군, 무화과 수매 실시

영암군 상호농협이 지난 14일부터 영암 무화과 수매에 나섰다. 상호농협 무화과유통센터에서는 11월 중순까지 무화과를 수매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10°C가 4~5일간 지속되어 무화과 동해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생산량은 작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암군에서는 무화과 동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영양제(411ha), 터널형 부직포(112ha), 과원정비(33ha)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1,43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7~8월 중 총채벌레 먹은 생과 출하를 막고, 고품질의 무화과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무화과 총채벌레 방제사업에 지원해 영암 무화과 브랜드 명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무화과 수매 초기 가격(1박스/1kg)은 6,000원대에서 출발하여 출하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시세를 보였고 올해 수매가격(1박스/1kg)은 5,000원~7,000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생과 출하량에 따라 가격에 변동 폭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농협에서 수매한 물량은 서울 가락시장, 부산 대형 공판장 등에 출하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고, 7월 중순 이후에는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에 납품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농가가 공판장 등 수매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선별과정을 철저히 하고, 익지 않은 무화과, 총채벌레 먹은 무화과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박스 작업 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남출/기자



강진군 (주)로우카본, ABB 코리아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임주기업인 (주)로우카본이 ABB 코리아(Asea Brown Boveri Korea)와 지난 1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 개선 기술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 개발, 사업 추진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로우카본에서 독

자적으로 개발한 기술과 ABB 코리아의 기술력을 접목시켜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주)로우카본은 환경 백신 기업으로, 고온의 연소조건에서 황 성분의 산화를 제어해 연소전탈황을 하는 황산화물(SOX) 저감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 발전시설 및 민간 기업,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기업과 전처리 탈황 시스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라남도와 산업단지 및 거리에 이산화탄소 흡수장치를 설치하는 K-Forest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BB 코리아는 세계 3대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대형 발전장치, 터빈, 기관차, 고주파 기기 및 각종 제어장치를 주로 생산하며 발전, 송전, 배전, 일반산업(야금학, 공정자동화 등), 운수, 환경보호, 금융 서비스, 로봇공학, 과급기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철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내 토종 기술과 세계 정상의 기술이 만나 세계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기회이다"라며 "양사가 보유한 기술로 국내 토종기술을 세계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완주군 희망복지지원단, 위기가구에 희망을

완주군 희망복지지원단이 사례관리 대상자의 위기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2일 완주군은 공공과 민간의 협업으로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위기상황 해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회의를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대상자는 독거노인으로 기초생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만성질환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건강악화가 우려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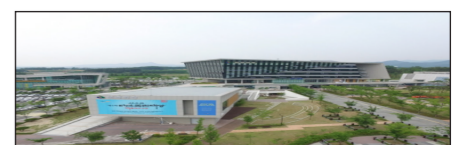
여었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 일부가 침수돼 긴급히 집수리가 필요했지만 여건 상 집수리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더불어 치매초기증상으로 우울감 및 불안감을 호소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으로 각 전문가들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보건의료 기관에서는 의료상담 및 치매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에서 배수로공사 비용을 지원해 추후 피해를 방지하는데 의견을 모

았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은 "복지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전라북도, 태양광에너지 저장장치 및 태양광LED 조명기구 생산 공장 건립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태양광 관련 제조 기업이 들어설 전망이다.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21일 전북도는 부안군, 경일그린텍(주), ㈜이엠퍼스트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일그린텍(주)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8,214㎡ 부지규모에 3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이엠퍼스트는 1,443㎡ 부지규모에 1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LED 조명기구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일그린텍(주)과 ㈜이엠퍼스트는 태양광 관련 사업의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연내 공장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일그린텍(주)는 이번 투자로 1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에너지저장장치 5,000대 생산에 따른 4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엠퍼스트는 이번 투자로 2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공기조화기 5천개 및 태양광LED 조명기구 10만개 생산에 따른 3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 업체 모두 초기 투자는 소규모이지만 추후 시장 확대에 따른 증설 투자 및 생산량 증대로 매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일그린텍(주)와 ㈜이엠퍼스트의 투자는 추후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의 분양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도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는

태양광 분야의 전북대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 풍력 분야의 한국재료연구원, 연료전지 분야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3개의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에서는 3GW 규모의 육상 및 수상 태양광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부부지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며, 무엇보다 투자에 목말라 있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태양광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음에 큰 의미를 둔다”라고 밝히며 “전라북도는 양 기업체 및 부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원광대와 익산교육지원청, 교육발전 상호협력 협약체결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와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이 유익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20일 박맹수 총장과 이수경 교육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익산지역 유치원·초·중·고등학생들의 진학 활성과 노력을 기울여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학 및

초·중·고교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영재교육 및 협동강의, 동아리 활동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 진로진학박람회, 전공특강, 설명회 등 입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교육, 인성교육, 상담활동을 위한 초청 강의 등 인력풀이를 운영하고, 대학시설 사용 및 첨단장비 활용 체험학습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교사연수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이선수/기자

‘고향으로 돌아온 문화재’ 고창고인돌박물관서 용계리 청자요지 유물본다



그간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고향출토 문화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21일 고창고인돌박물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처음으로 고창지역 발굴 유물 106점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관 받았다.

이번 유물 이관은 수장고 개선 등을 통해 지난해 9월 고인돌박물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받았

에 가능했다.

그간 고향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고향을 떠나 국립전주박물관 등 타지에 보관될 수밖에 없었다. 이관 유물은 지난 2018년 사적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5차 발굴조사에서 발굴된 청자함, 청자 잔탁 등 106점이다.

보관관리 위임기관 지정 후 국가귀속문화재의 이관은 고향의 문화재를 직접 소장하고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권리와 동시에 유물을 보존하고 활용해야 되는 책임도 뒤따른다.

향후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발굴조사된 반암리 요지 발굴조사를 비롯해 고향에서 발굴되는 중요 발굴유물 등이 국가귀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계별로 이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문화재는 제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은 만고의 진리다”며 “앞으로 고향에서 발굴된 소중한 유물이 고향 품에서 자라고, 활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나라꽃 무궁화, 완주를 물들이다

무궁화 대표도시 완주군에 나라꽃 무궁화 꽃이 만개했다.

21일 완주군은 국내 최장의 무궁화 100리길(17번국도)을 비롯한 관내 가로변과 무궁화동산에 식재한 나라꽃 무궁화 개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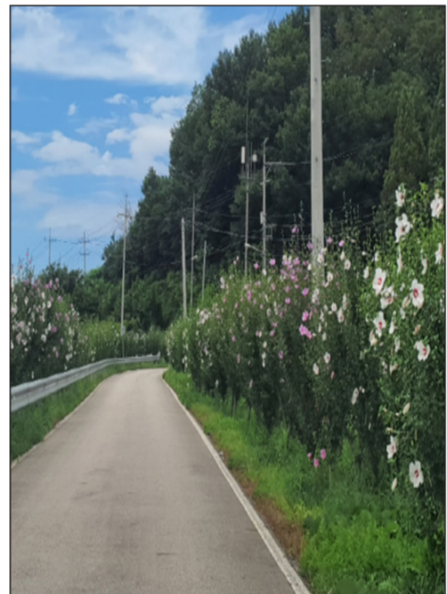
무궁화 개화로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주민, 관광객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을 주고 있다.

무궁화는 여름에 피는 꽃으로, 꽃의 색깔로 품종을 구분하는데 중심부에 단심(붉은색)이 없는 순백색 꽃이 배달계, 중심부에 단심이 있는 꽃이 단심계, 흰색 또는 매우 연한 분홍색 꽃잎 가장자리에 붉은색무늬가 있는 꽃이 아사달계이다.

무궁화꽃은 100일 동안 개화하며 완주군에서는 6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단심계를 비롯해 배달계, 아사달계 등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를 만나 볼 수 있다.

완주군은 나라꽃 무궁화 선양을 위해 산림청이 주관한 무궁화 전국 축제를 11회 연속(2011~2021) 유치·개최했으며, 무궁화동산 공모선정으로 자치단체 중 무궁화동산을 최다 조성(3개소 2만8천본)해 보유하고 있다.

또한, 무궁화전시관 운영, 전국 최초·최대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183종 보유), 무궁화 100리길 조성(1만5천본), 해외(일본, 중국) 무궁화



선양활동 및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나라꽃 무궁화 조성·관리 평가에서 전국 나라꽃 무궁화명소 우수기관 2회, 나라꽃 무궁화선양 대표도시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실공히 무궁화 대표도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무궁화를 나라꽃의 위상에 맞게 관리하고 홍보해 사랑받는 꽃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름답게 핀 무궁화가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작은 행복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영광군, 연암제 수원지 현장 방문 실시

영광군은 지난 16일 묘량면에 위치한 연암정수장을 방문해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원지 오염원을 사전 차단, 집진과 여과, 정수과정을 통한 배수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우리군 상수원 중 규모가 가장 큰 연암수원지는 1999년 9월에 준공되었으며 저수용량은 348만 톤으로 6개 읍·면(영광·대마·묘량·불갑·군서·군남)에 공급하는 중요한 수원지이다.

영광군수는 연암정수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수돗물 이용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수돗물 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여과사 교체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수원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5개 수원지에 대해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고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충청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문체부 승인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청권의 대회 개최 역량·의지 인정받아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은,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

위원회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았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대회 유치 승인은 국제대스포츠연맹(FISU)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지난 6월 3일 대한체육회의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 후 충청권은 대회 개최계획서, 지방의회 의결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대한체육회 승인결과, 타당성조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에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자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조정 등 국제행사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위원장인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회 유치 승인을 이날 확정했다.

전정에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위원회에서 충청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비전, 대회유산 및 지속가능성 등 국제대스포츠연맹(FISU)이 지향하는 키워드에 맞춰 심사위원 앞에서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 충청권은 세계 최초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최해 저비용·고효율 대회 운영을 통해 세계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 신축시설을 최소화해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교통·통신·숙박 등 대회 인프라와 교육·문화·관광 등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내실을 다질 방침이다.

충청권은 앞으로 유치 신청도시로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올해 9월 국제대스포츠연맹(FISU)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한마음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대한민국과 충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성원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최만식기자

대전시, 코로나4차 대유행 차단위해 '총력 대응'



대전시가 22일부터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는 가운데 3단계 방역수칙 실천에 대한 시민 참여율 제고를 위해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과 계도에 나섰다.

이와 관련, 21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황인호 동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용전동 복합터미널 및 이마트, CGV대전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오늘 점검을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5개구를 순회하며 유통시설, 유흥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시의 총력태세 돌입은 그동안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적은 확진자 발생률을 보이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7월 들어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지역 간 이동량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의 여파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대전시 전체 어린이집 1111곳에 대한 휴원명령을 발동했다. 휴원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번 4차 대유행을 차단

하기 위해 시·교육청·경찰·자치구 합동으로 단속반 2000여명을 편성, 집중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 치료로 이어지는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허태정 시장은 20일 저녁까지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직접 찾아 폭염속에서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에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허태정 시장은 합동점검후 관저2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대전시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대전제2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갖고 추가 시설의 절실함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크신데도, 대전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며 코로나 확산 저지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했다.

고정화기자

횡성군,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 이젠 횡성에서 이용해요!

횡성군,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20일 오픈

횡성군은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를 7월 2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일단시켜'는 임접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0원'인 배달앱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5월 17일부터 배달앱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모집해 7월 19일 현재, 116개의 가맹점이 가입완료했다.

오픈식은 20일 오후 2시, 원주 중앙시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강원도 경제부지사, 횡성군수, 원주시장, 영월군수 등이 참석할 계획이며, 서포터즈 2기 위촉식 및 배달앱 주문 시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군은 '일단시켜'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가맹점 모집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배달앱 오픈 기념 소

비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먹고 놀고 쉼단지', '쿠폰발행 행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단시켜의 가맹 대상은 관내 소재지가 있는 외식업종으로,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고객센터, 군청 기업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용방법은 민간 배달앱과 다르지 않다. 스마트폰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장신상 군수는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가 우리 군에서도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년년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일단시켜가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서산시, 평생교육 강사 바로 찾는 '강사은행' 운영

서산 강사은행 운영 안내

'강사은행'이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유능한 강사정보DB를 구축하여 수요(평생교육)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기간	연중	신청	서산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 강사은행 (https://www.seosan.go.kr/learning/index.do)
분야	평생교육 전 분야	대상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춘 강사로 평생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참조

평생학습 인력정보의 폭넓은 공유를 원하시는 강사님들의 등록을 기다립니다

서산시평생학습관 ☎ 041) 660-2489, 3049

충남 서산시가 평생교육 강사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강사은행'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사은행은 지역의 능력 있는 강사와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간의 효율적인 연결을 위한 온라인 창구다.

생활문화,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하고자 하는 강사라면 누구나 등록 가능하다.

등록 시에는 강의 분야, 강사명, 자격사항, 경력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은 등록된 강사를 손쉽게 확인하고 필요에 맞는 강사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

강사 등록 및 열람은 서산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서산시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은환 시 평생교육과장은 "강사은행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관내 강사들의 많은 관심과 등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충북 전통주,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휩쓸어

전국 총15점 중 6점 수상 쾌거, (유)화양 대통령상 수상 영예

'풍정사계 춘' 등 충북 전통주가 2021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휩쓸며 명성을 떨쳤다.

전국 5개 부문 총 234개 제품이 출품한 가운데 총 15점을 최종 선정하는 이번 품평회에서, 충북도가 4개 부문에서 6점을 수상해 충북 전통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청주에 위치한 (유)화양의 '풍정사계 춘'은 5개 부문 대상 중 현장 및 제품평가를 통해 대통령상(상금 1천만 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풍정사계 춘'은 2017년과 2019년 정상회담 만찬주로 선정된 전통주이다.

국내산 쌀과 직접 제조한 전통 누룩으로 빚은 약주로, 인공첨가물이 가미되지 않아 깔끔한 맛과 향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약·청주 부문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풍정사계 춘'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주)신선의 '청주 신선주 약주'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과실주 부문에서는 불휘농장의 '시나브로 청수화이트', 여포와인농장의 '여포의폼 화이트스위트'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해 영동와인의 명성을 전국에 알렸다.

또한, 청주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주)의 '이도 42'와 '우도광풍전통주'가 각각 증류주 부문과 기타주류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제품을 선정·시상하는 국가 공인 주류 품평회이다.

5개 부문(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주류)으로 나눠 심사하며, 국산농산물 비율, 술 품질 인증 취득실적 등 서류평가와 함께 향, 맛 등을 심사하는 제품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김용환 충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수상하신 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이번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을 통해 충북 전통주의 우수성과 명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충북 전통주의 경쟁력 확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고성군, 대진항 관광객 대상 수산물 경매체험 행사 진행

최북단 대진항 문어의 고향!

관광객 대상 수산물 경매체험 행사

- 행사기간 : 2021년 7월~11월 까지 ※ 오전10:30~현장접수
- 행사일시 : 1차: 7.24(화) 11:00 / 2차: 8.14(화) 11:00 / 3차: 8.28(화) 11:00
- 장 소 : 현내면 대진항 수산물시장 (주차장내)
- 접수(문의) : 현내면행정복지센터 (033)680-3631~3
- 선착순 100명

강원 고성군은 오는 24일에 대진항 수산물시장(주차장내)에서 관광객 대상 수산물 경매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관광객 대상 수산물 경매체험 행사'는 강원 고성군 최북단 대진항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유입을 위한 관광 콘텐츠로 7월~11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선착순 100명으로 진행된다.

경매체험 행사 진행은 ▶관광객 대상 사전 및 현장접수▶입찰서 배부 및 입찰가 공지▶입찰서 제출▶낙찰 순이다.

경매에 참여한 관광객 중에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한 참여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출한 참여자

가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직접 낙찰받은 수산물은 바로 현장에서 무료로 손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참가자 명부 작성 및 온도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현내면 만의 독자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어촌계, 수협과 연계하여 경매체험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지속적인 행사 추진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며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등원기자

금정구 김지에 씨, 행안부 청년일자리 공모전 최우수상



부산 금정구는 금정구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김지에(28) 씨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영상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열어 왔다.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 18건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 취업에 성공해 지역에 정착한 참여자들의 성공담이다.

구는 지난달,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여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2021년 금정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디지털 G.T.S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사례를 수집해 영상부분 1건, 참여수기 부분 3건 등 총 4건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김지에 씨의 사례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김지에 씨는 "금정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감사하다"며 "많은 사람이 본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지역기업과 청년을 연결해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가 수상해 의미가 크다"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신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고용노동부 공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공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남경영기자

제천시 상천마을, 충청북도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경관·환경 분야 도시사상 수상

충북 제천시 상천마을이 '제8회 충청북도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경관·환경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천시는 20일 제천시청에서 상천마을(이장 안경태)에 상장 및 시상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충북대학교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콘테스트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사이다.

경관·환경 분야에 참가한 상천마을은 농촌경관,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추진했다. 2013년 마을쉼터 보수·지정 등 시작으로 마을사업단을 구성해 산수유 보

존 운동 전개, 마을 꽃길가꾸기, 금수산 환경정화활동, 마을지도제작, 산수유축제 추진 등 많은 사업을 해왔다.

또한 어르신에게 마을자체 기금으로 장수연금을 지급하고, 공동체어촌 건립을 추진하는 등 마을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상천마을 이장은 "마을 주민들과 합심하여 전국 제일의 경관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천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민 화합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천마을은 이번 수상으로



충청북도를 대표해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전국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최만식기자

김천, 어린이를 위한 통큰 기부자 2명 동시 탄생

그린노블클럽 전국 280호, 그린레저시클럽 전국 32호



김천시는 지난 20일 시장실에서 ㈜푸드팩토리 대표이사 김경민과 함성호 후원자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간 후원금 약정

식과 유산기부 헌액식을 가졌다.

㈜푸드팩토리 대표이사 김경민은 김천시 아동을 위해 1억원의 후원금을 약정하고, 약3년간 매월 350만원을 후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억이상 기부자 모임 「그린노블클럽」의 전국 280호(김천시 1호) 후원자로 등록되었다.

울곡동에 거주하는 함성호 후원자는 유산기부 헌액서에 서약하면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유산기부자모임 「그린레저시클럽」 전국 32호(김천시 1호) 후원자로 등록되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부해주신 ㈜푸드팩토리 김경민 대표님과 함성호 후원자분에게 깊이 감사하며, 김천시도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천 후원회(회장 전광득)는 김천시 어린이들의 후원활동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현금, 주거, 의료, 난방용품 등 매년 2억원 이상 지원과 매년 12월 산타원정대 캠페인으로 아동양성활동을 하고 있다.

㈜푸드팩토리는 김천시 아포음에 소재한 김포일 제조업체로서 2019년 경북스타트업혁신 대상 3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김천시 이달의 기업에 선정되기도 한 중소기업이다.

김세기기자

김선영 제75대 대전중부경찰서장 취임

주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 대응



김선영 대전중부경찰서장은 19일 오전 대전 중구 소재 보호공원에서 영렬탑 참배 후 취임식을 시작하였다.

이날 취임한 김선영 서장은 코로나19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취임식 대신 각 과장, 지역관서장이 참석한 취임 간담회로 직원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선영 서장은, '대전 중구의 주민이자 경찰서장으로서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경찰활동으로 치안현장을 두루 다니며 동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중부경찰이 되자"라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치고, 김선영 서장은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영 서장은 대전 출신으로 경찰대학(7기)을 졸업, 대전청 사이버 수사대장, 대전청 형사과장, 대전청 사이버수사과장 등 다양한 직위를 역임했다.

고정화기자

2021 더 클래식 김해 오디션 강수연씨 우승



김해시는 지난 17일 김해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2021 더 클래식 김해' 지역예술인재 선발 오디션 우승자가 성악부문 강수연(25)씨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강씨는 가야초, 병명중 출신의 지역 예술인재로 서울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그는 이번 오디션에서 드라마틱한 표현력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아 상금 100만원과 2021 더 클래식 김해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쥐게 됐다.

2021 더 클래식 김해 지역예술인재 선발 오디션은 김해 출신 예술인 23명이 참가해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으며 본선에 진출한 5명(피아노 2, 플룻 2, 성악 1)의 심사를 2021 더 클래식 김해에 출연하는 지휘자 아드리엘 김과 피아니스트 김정원, 성악가 손혜수가 맡아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관계자는 "유명 아티스트와의 만남이 오디션 참가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1 더 클래식 김해는 9월 9일 오후 7시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개최되며 아드리엘 김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김정원, 성악가 손혜수, 바이올리니스트 다니구, 오디션 우승자 강수연이 참가해 가을의 길목에서 아름다운 클래식 콘서트를 선보인다.

최광용기자

울진군청 사격실업팀, 국가대표 권은지 선수 금메달 기원

울진군 사격실업팀 소속 권은지 선수가 오는 24일 08시30분부터 2021 도쿄올림픽 10m 공기소총 여자 일반부에서 대한민국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권은지 선수는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 10m 공기소총(여) 부문에서 3,162.9점의 탁월한 기록으로 도쿄올림픽 출전을 획득했으며, 자신이 세운 공인 한국 신기록 두 번과 비공인 세계신기록까지 세우면서 1위로 도쿄올림픽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생애 처음으로 올림픽 출전하는 영광을 얻었다.

권은지 선수(2002년생)는 충북 보은 출신으로 올해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으로 입단하여 10m 공기소총 부문에서 제22회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단체3위, 2021 한국실업사격연맹 회장배 전국사격대회 개인1위, 단체2위, 제4회 대국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 개인1위, 단체1위, 창원지사배 전국사격대회 단체3위 등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의 위상을 높이며 앞장서고 있다.

2021 도쿄올림픽의 33개 종목 중



첫 번째 메달의 주인공으로 주목 받고 있는 권은지 선수는 대회 1일차인 24일 10m 공기소총(여) 개인전과, 27일 10m 공기소총 혼성 경기에 출전하며, 포털사이트에서 '권은지 사격'을 검색하여 응원금을 등록할 수 있다.

권은지 선수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19 극복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기현기자

금천구청 여자 탁구단, 추계회장기 탁구대회 개인복식 우승!



금천구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다목적경기장에서 열린 '2021 추계회장기 실업탁구대회'에서 개인복식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실업탁구연맹이 주관하고

(사)대한탁구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실업팀이 참가했으며, 경기종목은 △남·녀 단체전, △남·녀 개인단식, △남·녀 개인복식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금천구청 여자 탁구단은 여자 개인복식 우승과 더불어 단체전에서도 준우승을 했다. 또한 개인복식 우승을 한 송마음·정유미 선수는 개인단식에서도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청 여자탁구단이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유아에서 실업팀 선수까지의 선수단체와 잘 구축된 탁구 인프라, 특히 지도자와 선수들의 끈나는 노력과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다"라며,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동신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광주시 북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1년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 동신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기관, 일터·희망지역자활센터 2곳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37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센터 역량 제고 및 사업 성과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북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활생산물 공동판매장을 조성·운영하며 상품 인식 개선, 저소득층 일자리 제

공 등 생산적 복지실현에 주력했다.

특히 동신·일터·희망 3곳의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독거생활자 안부살피기, 무료이불세탁, 집수리, 청소, 소독·방역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동신지역자활센터는 지난해 광주시 주관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지원사업' 공모 선정, 보건복지부 성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여러 성과를 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평가에서 북구의 지역자활센터 모든 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더욱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에는 3개 지역자활센터·58개 사업단이 활동 중이며 일자리 제공, 취·창업 지원 등 저소득층 자립과 자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덕윤기자

2021 중구문화의전당 - 아트홀릭 '판'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 퀵텟 '재즈 이야기'

중구문화의전당의 대표 브랜드 프로그램인 '아트홀릭, 판'의 다섯 번째 순서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 퀵텟' 공연이 오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중구문화의전당 합일홀에서 열린다.

세계적인 재즈아티스트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니는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은 아르헨티나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음악원에서 정통 클래식 수업을 받고, 미국 버클리 음대와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를 장학생으로 수학했다.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는 전 세계에서 단 7명만 선발하는 'USC, 델로니어스 몽크 인스티튜트'에 아시아인 최초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활동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그룹의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였던 허비 행콕이 "저 녀석이 언젠가 날 가르칠 거야"라고 한 말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또 허비 행콕을 비롯해 데이브 그루신(Dave Grusin), 테렌스 블랜차드(Terence Blanchard), 웨인 쇼터



(Wayne Shorter) 등 대가들과 공연을 하고 수많은 Jazz Festivals에 참가했다.

그리고 2010년까지 할리우드 뮤지션스 인스티튜트의 교수로 8년간 재직했으며 프랭크 시나트라 밴드의 수석 피아노 주자로 활동했다.

조윤성은 미국을 거점으로 세계 재즈계 거목들의 사랑을 받으며, 명실

공히 세계 정상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젊은 연주자로 현재까지 '재즈코리아', '라틴코리아', 'Bach Renovation' 등 10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했고 루시드폴, 폴킴, 윤종신, 이상순, 이은미 등의 편곡자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공연은 재즈 스탠다드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My

Foolish Heart, Just Friend, Nunca Briga Mais, Fly Me to the moon, Come fly with me 등에 대한 에피소드와 그와 관련된 미국 재즈 역사와 문화, 또 어떠한 편곡 방식으로 각각의 곡들이 재해석 되었는지 등을 피아니스트 조윤성의 해설과 그가 이끄는 재즈 퀵텟의 연주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공연 입장료는 전석 1만 5천 원으로 문화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구문화의전당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문화의전당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문화의전당은 철저한 시설 방역, 객석 거리 두기, 관객 발열 체크,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 운영 등으로 관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라며 "마스크 착용,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 등 관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다 안전한 문화 예술 향유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남동구, 내년 초 출범 목표 '남동문화재단' 설립 추진



인천시 남동구가 구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문화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남동구는 최근 남동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검토결과에 대해 8월 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구는 남동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고, 용역을 진행한 인천연구원과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는 남동문화재단 출범으로 구민의 문화적 권리 신장은 물론 남동구 문화사업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 지역문화축제사업과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생활 문화, 예술지원 뿐 아니라 정부의 문화정책사업도 적극 유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기초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에선 부평구, 연수구, 서구 문화재단이 설립됐고 중구도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인천연구원은 최종보고서에서 남동문화재단 설립 시 초기경비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지만, 기존 사업과 함께 추진이 미흡했던 다양

한 문화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관내·외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대표이사과 사무국장 체제에 ▲경영지원팀 ▲정책기획팀 ▲지역문화진흥팀 ▲문화예술지원팀 등 1국 4개팀 규모의 재단 조직을 제안했다.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청년미디어타워 등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재단 업무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인력 규모는 38명 정원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이관 사업비와 신규 사업비를 합쳐 재단 총 사업비를 약 21억 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41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6억 원의 부가가치, 65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구의회의 협조를 얻어 연내 조례 제정 등 내년 초 재단 출범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남동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재단 설립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절차로 남동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포항시립연극단,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연극페스티벌 in 경주' 참여

포항시립연극단이 지난 17일 '제12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in 경주'에 참가해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참가작품은 이달 1~3일까지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선보인 포항시립연극단 제183회 정기공연 '아빠 집, 대동배'로 가족애를 담고 있는 휴먼드라마로써 포항의 작은 어촌 대동배를 배경으로 인간미가 넘치는 우리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 일상 같은 친숙한 이야기는 오히려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범한 속에서 소중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였다. '대한민국국공립극단 페스티벌 in

경주'는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립예술단과 한국국공립극단 협의회가 주관해 매년 7월경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해 왔으며, 전국의 국공립극단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전국 국공립극단의 참여가 다소 저조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문화의 갈증을 느끼는 관객들에게 희소식이 된 공연이었다. 거리두기 좌석제로 좌석 수는 3분의 1로 감소됐지만 전 공연 매진을 기록했고,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관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페스티벌은 7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6개 단체가 참여해 개최된다. 경주시립극단(7월 9·10일), 대구



시립극단(7월 14일), 포항시립극단(7월 17일), 수원시립공연단(7월 21일), 목포시립극단(7월 31일), 강원도립극단(8월 4일) 등이 그동안 연습했

던 기량을 뽐내며 코로나와 더위에 지친 관객들에게 위로가 돼 줄 것이다.

김세기/기자

익산예술의전당,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 개최



우아하고 매혹적인 군무로 세기를 뛰어넘어 최고의 클래식 발레로 평가받는 유니버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가 익산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전당은 오는 23·24일 이들 동안 대공연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니버설발레단의 클래식 발레 '백조의 호수'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에 마리우스 피티파와 레프 이바노프의 천재적 안무, 발레리나의 1인 2역, 왕궁의 화려한 무대장치와 의상 등 관객이 발레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는 공연이다.

왕자 지그프리트가 악마 로트바르트의 마법에 걸린 공주 오데트를 만나며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인 이번

'백조의 호수'는 피티파·이바노프의 원작 4막이 2막 4장으로 수정돼 진행된다.

특히 밤의 호숫가 장면이 추가된 흑조 군무가 압도적이다. 스물네 마리의 백조와 흑조가 시시각각 대형과 동작을 바꾸는 선명한 대비로 관객을 사로잡는 역동적인 안무가 돋보인다.

이번 작품은 무리를 지어 백조들이 날아오르고 대형을 이뤄 춤추다가 순간적으로 흐트러지는 등 긴장감과 속도감을 더한 구도와 동작이 관객을 압도하는 최고의 클래식 발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좌석 띄어 앉기와 손소독제 비치,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일/기자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 환경사랑 글그림 공모전 우수작 온라인 전시



인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제8회 자원봉사 글그림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를 열었다.

이번 공모전은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환경사랑 캠페인'을 주제로 일상에서 실천한 자원봉사활동 수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다.

글부문 일반부 대상에는 최동석씨의 '일상속 환경 친화적 삶을 통한 환경살리기와 코로나 블루 극복'이 미추홀구청장상을 수상했다. 또 그림부문 초등부 대상은 김보림(학익초 5)학생의 '줍줍활동', 중고등부 대상은 고유나(영종국제물류고 3)학생의 '환경자원봉사로 달라지는 일상'이 각각 인천시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센터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자원봉사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수상작품은 홈페이지 글그림 전시회에서 관람할 수 있다.

김종남/기자

광명문화재단, 8월 문화가 있는 날 '클래식의 맛-클래식 인싸 n 아싸' 공연 개최

광명문화재단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마주보는 콘서트-클래식의 맛 클래식 인싸 & 아싸' 공연을 8월 25일 저녁 7시 30분에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광명문화재단의 '마주보는 콘서트-클래식의 맛'은 '마지막 주에 보는 콘서트'라는 의미이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에 추진된다. 클래식을 주제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수한 아티스트 8팀을 초청하여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 장르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클래식 인싸 & 아싸 공연은 클래식 음악에도 악기와 레퍼토리 측면에서 인싸와 아싸가 존재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취미 악기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플루트와 관중을 압도하는 외형을 가졌지만 접하기 힘든 하프의 만남을 선보인다. 클래식계의 신예 하프리스트 황세희와 플루티스트 한여진으로 구성된 '듀오 피다'의 다양한 레퍼토리와 음악평론가 송현민의 쉽고 편안한 해설로 천상의 하모니와 감동적인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플루티스트 한여진은 2016 독일 베를린 라이징 스타 국제 플루트 콩쿠르 1위, 미국 파벨 플루트 아티스트 선정, 2017 고베 국제 플루트 콩쿠르 3위 및 청중상을 수상하였으며, 하프리스트 황세희는 2014년 라이언&힐리 어워드 우승, 2014년 프랑스 국제 하프 콩쿠르 그랜드 하프 최상급 부문 1위, 2016년 USA 국제 하프 콩쿠르 4위를 수상하는 등 듀오 피다는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신



예 아티스트이다. 이번 공연은 니나 로타, 알폰스 하셀만, 장 미셸 다마스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작곡가의 하프와 플루트를 위한 소나타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드뷔시, 차이콥스키, 피아졸라 등 우리에게 익숙한 작곡가의 레퍼토리를 플루트와 하프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듀오 피다의 클래식의 맛 클래식 인싸 & 아싸 공연은 8세 이상 관람가이며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다. 한편, 2021년 광명시민회관에서 기획한 'GMC 초이스' 공연 관람 후 현장에서 관람카드에 스탬프를 받으면 광명시민회관 기념품을 증정하는 GMC 관람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연 3회 관람 시 양말 2중, 5회 관람 시 고급 핸드타월세트를 증정한다.

전순희/기자

제 30 회 김해도예협회전 개최

김해도예협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김해문화의전당 예술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제30회 김해도예협회전'을 개최한다.

김해도예협회전은 김해 도예인들이 한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항아리, 화기, 다기 등을 전시하는 자리로 이번 전시에는 70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전시는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작가와 상의해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김해도예협회 안홍관 이사장은 "김해는 조선시대 분청사기의 전통을 계

승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회원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다"며 "김해도자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분들이 관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도예협회는 1989년 5월에 설립된 현재 80여 명의 도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해분청도자기축제,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 경남차사발전국공모전 등의 행사를 주관하며 김해 도예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최광용/기자



'보이스4' 이규형 과거사궁금증3 #인격#유괴사건#이하나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 심판의 시간'(연출 신용휘/극본 마진원/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보이스 프로덕션)(이하, '보이스4')에서 이규형이 '4인격 연쇄살인마' 동방민으로 살 떨리는 열연을 펼치고 있다. 특히 본체를 제외한 그의 3인격이 24년 전 유괴사건에서 시작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앞으로 공개될 이규형의 과거사에 얽힌 궁금증 포인트를 미리 짚어봤다.

#1. 동방민 주변인에서 만들어진 3인격 '서커스맨=동방민 유괴범 인격' 마스터-센터장 인격 정체는?

동방민의 3인격이 그의 주변인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 중 살인욕이 강한 서커스맨 인격의 정체가 24년 전 동방민을 유괴했던 엄석구(김유남 분)로 밝혀진 가운데 이제 센터장, 마스터 인격의 정체만 남은 상황. 앞서 공개된 마스터 인격은 전체적인 판을 설계하는 역할. 다크웹 서버 등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한우주(강승윤 분)가 미끼를 놓자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내가 좀 더 알아볼테니 기다려주세요"라며 가장 먼저 수상한 감제를 알아챘다. 특히 서커스맨 인격과 센터장 인격이 분열 조짐을 보이자 "그만들 좀 싸우세요. 지금은 우리가 못쳐야 살 수 있다고요. 다 같이 사라지기 싫으면 증거부터 치우자고요"라고 진정시키는 등 두 인격의 존재사로 활약하고 있다. 반면 센터장은 강권주(이하나 분)를 모티브로 한 인격. 마스터가 서커스맨에 게인 커뮤니티에서 외로운 아이한테 접근해 말을 걸면 센터장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살인사건에 앞서 강권주에게 살인 예고장을 보내고 서커스맨 인격이 강권주를 공격하자 "안 돼! 쟤 내 살상동이야. 그렇게 죽일 수는 없어"라며 구해주는 등 강권주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연 동방민 내면의 2인격이 누구를 기반으로 '왜' 만들어졌는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2. 24년 전 동방민 유괴사건 미스터리! 진실은?

지난주 24년 전 있었던 동방민 유괴사건이 공개된 가운데 아직도 베일에 싸인 미스터리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바로 소년촌장이자 동방민의 조부 동방현업(장항선 분)이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여부다. 특히 동방민 유괴사건의 최종 목격자이자 그의 시종 관판택(이정열 분)이 "도련님이 그 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24년 전에 죽은 그 놈이 도련님 몸 속에 들어가서.."라며 두려움을 호소하자 일순간 표정이 변한 동방현업이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어"라고 경고하며 비밀이 누



설되지 않도록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자살로 판명된 엄석구가 타살 당했다는 부친의 탄원서와 함께 동방민 유괴사건 담당자가 데릭 조(송승헌 분) 모친 사건을 담당했던 구형태(김휘열 분)로 밝혀지는 등 의심가는 부분이 많은 상황. 또한 동방현업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소년촌민들을 미신으로 세뇌시키고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악행으로 시청자들에게 경악을 주고 있다. 과연 24년 전 동방민 유괴사건과 관련해 무엇이 실제적 진실일지 궁금증을 높인다.

#3. 강권주 괴롭히는 '악몽+이명', 동방민과 연관 있을까?

끝으로 '강권주를 괴롭히는 이명과 악몽이 동방민과 연관돼 있을까?'하는 부분이다. 강권주는 어린시절 눈을 다치고 회복한 후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귀로 듣고 귀로 보는 특별한 재능 즉, 초청력을 갖게 됐다. 특히 동방민의 인격 중 하나인 센터장이 강권주와 그녀의 초청력을 모방한 만큼 시청자들도 "강권주와 동방민 무슨 관계?"라는 댓글을 남기며 두 사람이 어떻게 얽히게 됐는지 궁금증을 내비쳤다. 그런 가운데 앞서 공개된 11회 예고편에서 강권주가 어린 동방민(오한결 분)에게 쫓기는 모습이 공개, 두 사람의 과거 연결고리에 대한 궁금증을 한층 높였다. 특히 어린 동방민은 강권주에게 "누나 나 좀 도와줘. 설마 나 기억 못해?"라며 의 미심장한 말을 내뱉어 과연 강권주가 어린 시절 소년촌에서 자랐던 것인지 등 이들의 관계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적 스틸러로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우수무당가두심' 김새론X남다름, 도끼X뺨줄로 무장 완료! 악령 잡으러 왔다! 메인포스터 공개!

카카오TV 오리지널 <우수무당가두심>이 저마다 특별한 무기를 든 채 미스터리 사건에 맞설 준비를 완료한 김새론과 남다름 등 '퇴마 듀오'를 중심으로, 문성근, 유선호, 이지원, 윤정훈이 총출동한 메인 포스터를 공개해 30일(금) 오후 8시 첫 공개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2021년 여름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오싷한 재미를 선사할 <우수무당가두심>(연출 박오진 / 극본 주 브라더스 / 기획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제작 메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김새론, 남다름, 문성근, 유선호, 이지원, 윤정훈이 총출동한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우수무당가두심>은 원치 않는 운명을 타고난 소녀 무당 '가두심'(김새론 분)과 원치 않게 귀신을 보게 된 엄친아 '나우수'(남다름 분)가 위기의 18세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함께 미스터리를 파헤쳐가는 고교 퇴마로고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루며 오싷한 재미를 주는 것은 물론, 퇴마를 소재로 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주제 의식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낼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금방이라도 소름 끼치는 사건이 일어날 듯한 어두컴컴한 학교를 배경으로 귀신과 소통하는 신비한 능력을 타고난 소녀 무당 두심과 그녀와 만난 후 귀신이 보이는 신세계에 눈을 뜨는 소년 우수가 나란히 선 모습이 담겼다. 먼저 두심은 날카롭게 빛

나는 도끼를 어깨에 걸치곤 허공 위 무언가를 때서운 눈빛으로 뿜어져라 바라보며, 당장이라도 미스터리한 정체와 환관 대결을 벌일 것만 같은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어 시선을 강탈한다. 우수는 양손에 뺨줄을 쥔 꿈 싸맨 채 굳은 표정으로 두심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도끼와 뺨줄 등 저마다의 필살 무기로 무장한 퇴마 듀오는 교복 차림임에도 범법할 수 없는 포스를 풍기며 악령과 싸울 준비를 마친 태세다. 두 사람이 귀신을 보는 신묘한 능력을 200% 활용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치솟는다.

두심과 우수 뒤, 송영고등학교 교장 '경필'(문성근 분)과 고등학생 영혼 '현수'(유선호 분)의 모습도 시선을 강탈한다. 경필은 송영고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으로 만든 주인공답게 근엄한 카리스마가 담긴 표정을 한 채, 독사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고 있다. 냉철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속을 알 수 없는 미소, 비밀을 감추고 있을 것만 같은 아우라가 느껴진다.

현수는 두심과 우수를 비롯한 송영고 학생들 사이에서 나홀로 백발헤어스타일과 다른 교복을 입은 채 불협화음 차림새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죽음을 맞이한 뒤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두심의 곁을 맴도는 영혼 현수가 송영고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두심, 우수와 같은 반 친구인 '수



정'(이지원 분)과 '일남'(윤정훈 분)은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친근한 학생의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우수를 짝사랑하는 수정은 우수 바로 뒤에 서서 깜찍한 핑크색 미니 크로스백을 맨 채 팔짱을 끼고 있어 포스터 속 모습만으로도 새침하며 질투 많은 성격이 드러나는 듯하다. 또한 우수의 친구이자 전교 꼴등 후보인

일남은 허공 위 미스터리한 존재를 향해 원망 섞인 표정을 짓고 있어 그에게 무시무시한 사고가 덮칠 것을 예고하는 듯해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편, 카카오TV 오리지널 <우수무당가두심>은 매회 20분 내외, 총 12부로 구성되며, 7월 30일(금) 오후 8시 첫 선을 보일 계획이다.

최재은/기자

뮤지컬 '레드북' 공연 재개, 아이비 합류!



뮤지컬 '레드북'이 지난 7월 18일부터 공연을 재개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주간 공연을 잠시 중단 했던 뮤지컬 '레드북'은 공백이 무색할 만큼 열렬한 호응 속에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본 작품으로 '2018 제7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아이비의 합류는 그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지난 6월 4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3년 만에 막을 올린 뮤지컬 '레드북'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말해주며 초연 이후에도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코로나19로 관객과의 소통 창구가 많이 줄어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아이비 온라인 쇼케이스, 뮤지컬 라이브쇼 '뮤:시즌'을 통해 실시간 댓글로 소통하며 관객들

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한 바 있다.

지금까지 뮤지컬 '레드북'을 온라인으로 접하거나, 직접 관람한 관객들은 "레드북을 보고 난 후 세상 이따라 보인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안나가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속에 세상에 하고 싶은 말들이 가득 담겨있었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는 극이다"라며 공연 소감을 전하며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에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한편, '시카고', '위키드', '지킬앤하이드' 등 꾸준히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 아이비의 합류로 전배우가 무대에 올랐다.

초연부터 뮤지컬 '레드북'과 함께하며 진취적이고 솔직한 여성의 모습을 표현해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그녀의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7월 20일부터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아이비는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에도 숙녀보다 그저 '나'로 살고

싶은 여자 '안나' 역할을 맡아 세상의 비난과 편견을 무릅쓰고 작가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욕망하고 성취하는 여성의 힘과 아름다움을 유쾌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초연 멤버 아이비가 새로운 게스트 차지연, 김세정과 다른 자신만의 색깔을 입힌 '안나'를 어떻게 보여줄지 이번 시즌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page 3 / 4 뮤지컬 '레드북'은 공연 재개 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에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철저한 방역과 객석 거리 두기 등 안전 운영 수칙을 준수하며 공연을 진행 중에 있다.

지독하게 보수적이었던 시대, 진정으로 자유로웠던 캐리커들의 새빨간 꿈과 사랑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레드북'은 8월 22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현주유/기자

정유미, 새 프로필 사진 공개...청순vs시크 상반 매력 눈길



배우 정유미가 상반된 매력의 새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미스틱스토리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한 정유미가 21일 새 프로필 사진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 속 정유미는 내추럴한 스타

일링만으로 완벽한 청순미를 완성했고, 또렷한 이목구비와 잡티 하나 없는 피부 역시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 스트라이프 수트로 분위기를 반전시킨 정유미는 고혹적이면서도 시크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 한층 더 성숙해진 비주얼로 남다른 아우라를 뿜어내 감탄을 자아냈다.

정유미는 2003년 영화 '실미도'로 데뷔한 뒤 영화 '원더풀 라디오', '터널 3D', 드라마 '동이', '천일의 약속', '육룡이 나르샤', '프리스트', '김법남녀'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남다른 캐릭터 소화력과 안정된 연기력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연기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과 라디오 DJ로 활약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 온 정유미가 새롭게 동지를 튼 미스틱스토리와 함께 어떤 활동들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주유/기자

신예 배우 추영우, '남친짤' 대량 생산하는 훈훈한 일상으로 눈길!

신예 배우 추영우의 훈훈한 일상이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W-STORY 웹드라마 'You Make Me Dance(유 메이크 미댄스)'로 처음 얼굴을 알린 후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의 핫 루키로 떠오르며 기대를 높였던 배우 추영우가 오는 8월, KBS2 '경찰수업'으로 첫 안방극장 데뷔를 앞두고 자연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는 일상 사진들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추영우는 꾸미지 않은 수수한 스타일에도 훗칠한 키와 조각 같은 외모로 만났남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추럴한 컷 속에서도 각 사진마다 다채로운 분위기로 '남친짤'의 정서를 보이고 있는 것.

이렇듯 일상에서도 눈에 띄는 매력이 가득한 추영우는 오는 8월 9일 오후 9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경찰수업'에서

경찰대학 1학년 신입생 박민규 역으로 찾아올 예정이다.

최재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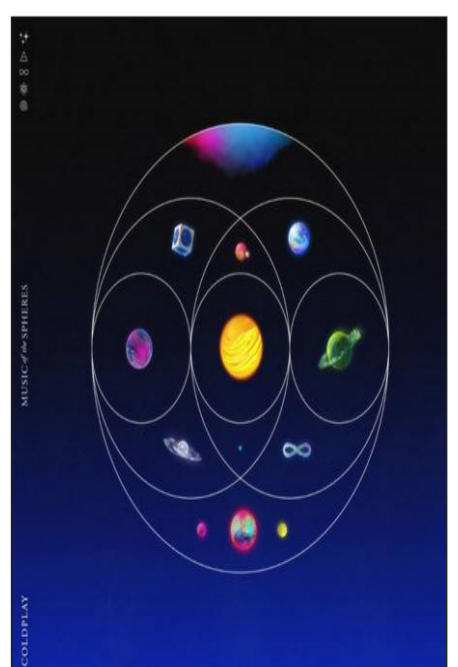
콜드플레이 새 앨범 'Music Of The Spheres' 발매일 및 독특한 트랙 리스트 공개!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의 9번째 정규 앨범 [Music Of The Spheres]가 오는 10월 15일 공식 발매될 예정이다.

콜드플레이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필 편지와 앨범 트레일러를 공개했다. 트레일러 영상에는 앨범 커버의 핵심 아트웍을 활용한 우주 여행 콘셉트의 애니메이션과 앨범 수록곡이 짧게 이어지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새 앨범에는 유명 프로듀서인 맥스 마틴(Max Martin)이 참여한다는 내용과 7월 23일에 새 싱글 'Coloratura'가 발표되며, 다음 싱글은 9월로 예정되어 있음은 친필 편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서는 외계인(이방인)이다.'라는 구절이 있어 공상과학 테마가 앨범 세계관임을 시사했다.

특히 [Music Of The Spheres]의 수록곡 중 5곡의 제목이 이모지로



되어 있어 흥미로움을 유발한다. 전순희/기자